



百三十万

跆拳道는 우리 민족의 슬기 속에서 오랜동안을 獨自의으로 發展해 나온 우리 固有의 武術로서 오늘 날 世界 萬邦에 紹介되어 人種이나 民族의 多름에 拘礙됨이 없이 많은 數의 사람들이 修練하고 있는 國技입니다.

國內에서는 勿論, 皮膚色이 틀리고 言語가 다른 사람들이 太極旗를 揭揚하고 우리 말 口舌에 맞추어 跆拳道를 修練하고 있는 것은 眞正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跆拳道가 國威를 宜揚하고 民間 外交에도 實質의으로 이바지 해 왔음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事實입니다.

政府는 國民의 體育振興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國民의 体力은 바로 國力の 根幹이 되는 까닭입니다.

오늘 날 우리가 이룩해 놓은 經濟成長도 그 것을 이룩한 힘에 못지 않게 그것을 지켜 나아 갈 힘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힘은 무엇보다도 그 것을 堪當할 全体 國民의 強靱한 体力이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本人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視點에서 볼 때, 一百三十萬名이 넘는 跆拳道 人口로서 全國 坊坊曲曲에 걸쳐 파고 들어 國民의 体位向上에 이바지하고 있는 跆拳道는 그러한 國家的인 要請에 效果的으로 寄與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 크게 달라지고 있는 國際情勢와 北傀가 南侵野慾을 버리지 않고 있는 狀態로 戰爭의 危險性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人은 이 어려운 時期에 우리의 자랑스런 國技인 跆拳道가 國民의 總和를 이룩하는 前衛的인 役割을 다 할 수 있으며 이 나라가 直面한 非常事態를 克服하는 데 있어서 跆拳道 訓練을 통해서 얻어지는 強한 意志와 体力은 큰 힘을 보태어 줄 것으로 또한 믿습니다.

跆拳道는 우리 國軍에 普及되어 이미 그 莫強한 힘을 倍加해 주었으며 越南戰에서 그 事實은 歴歷히 立證된 바 있습니다.

本人은 体力이 주는 自信은 生活를 健康하고, 바르고, 誠實하게 이끌어 준다는 確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精神이란 勝敗보다도 「페어·플레이」를 信條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本人은 跆拳道인의 強靱한 体力과 「스포츠」精神은 不信과 不正, 그리고 不

跆拳道人에게 부치는 글

國務總理 金 鍾 泌

安, 즉 우리 사회의 病弊가 되고 있는 三不을 追放하기 爲한 旗手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跆拳道人인 여러분은 그러한 歷史的인 使命感을 痛感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機會에 本人은 또 國內·外의 全 跆拳道人들에게 몇 가지를 當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 世界에 우리 民族의 일을 심는데 있어, 하나로 團合된 큰 힘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本人은 跆拳道界에 分派가 있어 協同으로 이루어 져야 할 向上을 沮害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相對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跆拳道人 個人이 「나」의 役割을 깨달고 하나로 가는 「일」을 向한 큰 뜻을 爲해 조그마한 一員이 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면 그건 이미 成功의 길일 것입니다.

두번 째는, 靑少年에게 뿐만 아니라 全 國民을 爲해 指導者的 役割을 할 技와 智를 길러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國家非常事態에 處한 우리 모두에게 힘과 自信과 勇氣를 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國土統一을 이룩하고, 그리고 富強한 國家로서 自由와 正義를 지켜 나아 가는데 있어 跆拳道人의 이러한 技와 智의 修練은 큰 推進力의 口實을 하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跆拳道人 여러분이 跆拳道 宗主國의 體面을 갖추기 爲해 얼마 前, 跆拳道中 央道場의 建立 起工式을 가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本人은 跆拳道의 名實相符한 發展을 爲해 可能한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全 跆拳道人은 늘 徹底한 自覺의 姿勢로써 跆拳道의 發展을 沮害하는 要素를 除去해 나아감은 勿論, 不斷한 努力과 研究를 통해 跆拳道의 技術 開發에 專力해 줄 것을 當부하고자 합니다.

멀리 高句麗 時代부터 우리들의 先祖들에 依해 承繼되어 온 國技 跆拳道는 그 傳統과 向上된 技術을 우리의 後孫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跆拳道를 오는 날과 같은 世界의 跆拳道로 育成·發展시킨 國內·外 跆拳道人들에게 더욱 奮發하도록 激勵를 보냅니다.

一九七二年 一月 日

내실과



태권도인의 오랜 숙원이던 태권도 중앙 도장의 건립 기공, 태권도 교본 저술 등 중요한 사업들을 벌려 놓은 채, 대망의 72년을 맞이 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된 이래 가장 의무적으로 일에 임할 수 있었던 지난 해에 이어 금년은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 동안 벌려 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태권도의 명실상부한 발전을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에 우리는 태권도를 사랑하고 아끼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확립하여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 하나 제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협회의 연륜(年輪)이-유아기(幼兒期)를 벗어났다고 보아 꾸준한 성장 속에서 내실(內實)을 거두기에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이 단합된 힘을 과시해야 하는 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국제정세의 변동과 복귀의 남침야욕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금, 우리 태권도인은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아야 하며 비상사태하에서 문교부가 장학지침으로 정해 놓은 태권도는 전력증강 종목으로의 개발을 위해 보다 힘을 다 해서 국력을 기르는 첩경의 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및 시·도지부의 대의원들이 모여 총회를 가졌던 자리에서 그러한 사명감을 통감하고 신념을 가지고 소신껏 태권도의 육성 제발(啓發)에 임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성할 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업계획을 능률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밀고 나아 갈 새롭고 강력한 진용(陣容)을 갖추기 위해 협회의 편제가 개편되었고 새로운 집행부의 탄생과 함께 기술심의회를 강화, 8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태권도의 내실(內實)을 기하고 발전을 위해 취해진 금년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감당할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중앙도장의 완공

成長을 向해 前進하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운 용

과 태권도 교본의 발간입니다.

형과 기술상의 슬어가 이미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그 것이 현재처럼 혼선을 빚어 온 것은 바로 그 것을 뒷 받침 해 줄 권위있는 태권도 교본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꼭 태권도 교본을 발행하여 내실(內實)을 기하는 효시(嚆矢)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도장을 완공하여 그 동안 열말해 온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 태권도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가장 커다란, 전통(傳統)을 가진 행사로 육성하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 한다면 금년에는 단증(段証) 재교부를 단행하고 그 동안 난맥상(亂脈相)을 보였던 유단자들의 진부(眞否)를 가려내어 사이비(似而非) 태권도인을 물아 내는 자체 정화를 실시하여 태권도의 질(質)을 높여겠습니다.

친애하는 태권도인 여러분!

태권도는 우리 나라의 국기(國技)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130 만이라는 거대한 태권도의 저변인구(底辺人口) 확대에 보다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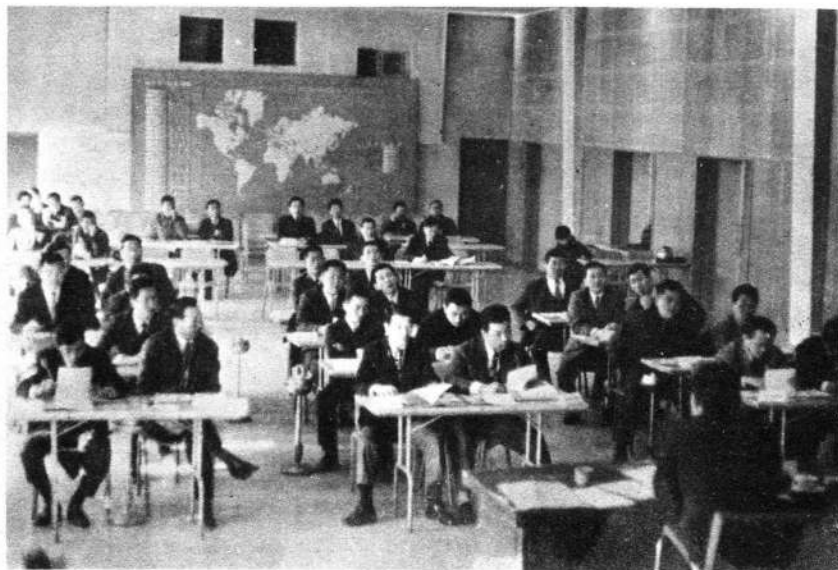
그러므로 금년은 태권도인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는 《태권가족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익에 대하여는 여러분들 자신만치 잘 알 수는 없읍니다. 여러분들은 태권도가 국민체력증강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태권가족운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들의 눈부신 업적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자 하며 국제사범들의 자질을 강화하고 권위를 인증(認證) 하기 위해 국제사범자격증을 발부하고자 하는 본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약과 성장》을 향한 단합된 힘의 과시 속에서 내실(內實)을 기하고자 하는 우리 행동의 지침(指針)을 정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하도록 합니다.

跳躍의 해 197년



1972년도 중앙대의원 및 시·도지부 대의원총회가 1월16일 오전 11시 대한체육회 10층 대강당에서 김운용 본 협회 회장을 비롯 집행부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막을 올렸다.

지난해는 우리가 어느 때 보다도 태권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때문인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총원 25명중 재일지부 및 경기도지부 대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23명의 성원으로 개최되었는데 참석하 대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대의원 :

이 종우(李鍾佑)
이 영근(李英根)
권 경욱(權京旭)
이 태성(李泰成)
최 인범(崔仁範)
김 봉길(金奉吉)
김 봉철(金峯喆)
지 상섭(池相燮)
조 태일(趙泰一)
엄 영철(嚴英喆)
이 응삼(李応三)

진 덕영(陳德永)
이 일성(李一成)
고 선식(高善植)

시·도지부 대의원

김 천선(金千善)
정 갑순(鄭甲淳)
강 정구(姜正求)
전 일섭(田逸燮)
전 철(田 鉄)
최 규열(崔圭烈)
김 두운(金斗雲)
박 래순(朴來淳)

도의代議員總會



태권도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순간!

김 운용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태권도인들이 지난 날을 회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길을 향한 전반적인 문제를 도의 결정하며, 태권도의 명실상부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순간이 되어지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병모(전 총무이사)씨로부터 1971년도 대의원 총회 회의록 낭독이 있는 다음 박 래순 부산 직할시 대의원의 제안으로 대의원간의 인사교환이 있었고 회의순에 따라 임시의장 선출로 들어 갔다.

임시의장 후보로 중앙대의원의 이 중우씨와 전북

대의원 전 일섭씨가 천거되었으나 거수표결 결과 2 대 12라는 압도적 다수표로 이 중우씨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이날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결산보고서에 상세한 가감 대조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전 철(田 鐵) 대의원의 지적에 따라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추후 질의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할 것을 전제로 회의는 계속되었고 이 계광(李啓光) 감사의 감사 보고 가 있었다.



1. 종합적인 수지결산에 의하면

수입 : 13,641,528 원
지출 : 14,054,252 원

2. 과목별 계정분석에 의하면

가. 일반회계계정

수입 : 9,068,738 원
지출 : 9,511,329 원
부채 : 442,591 원
70년 이월 부채
393,203 원
71년도 부채
49,388 원

나. 상해보상금 계정

수입 : 123,540 원
지출 : 7,000 원
잔액 : 116,540 원
작년도 이월액 :
181,330 원

합계 : 297,870 원 (예금보관)

다. 중앙도장 건립기금 계정

수입 : 2,107,400 원
지출 : 1,385,130 원
잔액 : 722,270 원
작년도 이월액 :
1,458,150 원

합계 : 2,180,420 원 (예금보관)

라. 태권도지 발간 계정

수입 : 2,341,850 원
이수금 : 269,850 원
지출 : 3,150,793 원
부채 : 539,093 원

이 계광 감사는 태권도지 발간계정에서 지급된 연구비 90,000 원은 태권도에 관한 연구비임으로 일반회계로 대체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계광 감사는 70년도와 71년도 수지 대비에서는 수입에 있어 일반 관리비가 70년에 6,637,843 원, 71년에 8,836,388 원으로 2,198,545 원이 증가했고, 건립기금은 70년의 1,458,150 원에 비해 71년은 1,107,400 원으로 350,750 원이 감소했으며 상해금은 70년의 195,830 원에 비해 71년은 195,830 원으로 72,290 원이 감소 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 일반 관리비가 70년에 6,985,446 원, 71년에 9,278,929 원으로 2,293,483 원이 늘어났으며 건립 기금은 70년의 45,000 원에 비해, 71년의 385,180 원으로 그 지출의 340,130 원이 증가했다.

상해금 지출은 70년의 14,500 원에 비해 71년에는 7000 원으로 7,500 원이 감소, 기술향상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는 점을 감사보고를 통해 강조했다.

사업대비에 있어서는 70년도의 승단심사 41회 8,319 명에 비해, 71년에는 42회 8,442 명으로 1회 123 명이 증가 했다.

경기는 70년의 9회 76팀 2,160 명에 비해 71년에는 10회에 62팀 2,692 명이 참가했는데 1회 532명이 증가한 셈이나 「팀」 수로는 14「팀」이나 감소했다.

강습은 70년에 4회에 89명이 참가했으며 71년에는 12회 440 명으로 8회 351 명이 증가했다.

해외파견사업은 70년에 13개국 21명에 비해 71년도에는 10개국에 45명으로, 파견국은 줄었으나 파견 인원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와는 별도로 김 운동 회장이 작년도에 무려 3, 890, 000 원에 달하는 특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협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히면서 감사보고를 끝맺었다.

감사보고에 따른 질의에서 강원도 지부 대의원은 구두 설명으로는 상세한 것을 모르겠으므로 유인물 배포를 요구했고, 전라남도 전 철 대의원의 각 항목별로 질의가 계속됐으나, 이에 대해 임시의장인 이종우씨가 종합적인 해명으로 수지결산의 통과를 보았다. 이어서 72년도 사업예산의 통과, 사업계획안이 무수정으로 통과를 보았다.

사업예산 토의에 있어 일부 지방 대의원들에 의해서 보조비 지급 실현이 촉구되었고,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대통령기 경탈 전국대회를 종목별로 구분 확대해서 민족제전으로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시간관계로 기타상황에서 토의하기로 미루어 졌다.

비약을 向한 隊烈을 갖추다 !

이어 임시의장은 1972년 1월 14일 이사회에서 임원 총사퇴 결의에 대한 추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질의가 있자 엄 윤규(전 부회장)씨가 임원 총사퇴를 결의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과 보고가 있었다.

“우리 협회는 예년에 비해 작년도 많은 일을 했고 또한 많은 일을 벌려 놓았습니다. 72년도에는 협회 중앙도장건립을 비롯해서 교본 발행 등 큰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보다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처할 수 있는 새 집행부 구성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회장님께서 이 박중한 사업을 성과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임원 총사퇴를 결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엄 윤규씨의 해명에 대해전 철 전라남도 대의원은 과거 어느때 회장단 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현 회장단의 총사퇴 이유는 남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의를 표시했으나 대다수 대의원들이 임원 총사퇴를 받아드려 결국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어 대의원 총의로 김운동 회장에 대한 재선임이 결정되었고, 만강의 우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의장직에 착석한 김 운동회장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태권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지난 한해를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 마련된 사업계획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도 여러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권도의 위치, 자세, 방향을 자각하고 나라와 태권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참되고 알찬 유산을 남겨 줄수 있기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태권도는 국기(國技)로서, 스포츠으로써 그 위치를 단단하게 구축했으며, 세계에서라도 사랑받는 우리 태권도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과연 태권도 종주국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를 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태권도인들이 이와같은 사업과 목표에 다 같이 참여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태권도인은 우리가 세운 사업과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내면적인 충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권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듭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회장의 재취임사가 끝나자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일임하자는 동의가 만장 일치로 가결 통과 되었다.

기타 토의 사항에서 질의된 사항중 대한 태권도협회 국제부와 국제 태권도연맹과의 기능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이 질의에 대해 김 운용 회장에 의해 답변이 있었다.

즉 대한 태권도 협회는 대한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유일한 가입단체이며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가 가진 국제부의 기능은 대한태권도 협회의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라는 점, 그리고 국제연맹은 국제연맹대로 커가야 하며 국제 경기를 주관하는 다른 기구처럼 발전되어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는 점, 따라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우리가 할 일만을 하면 되고 국제 연맹이 어떻게 대한태권도협회가 어떻게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바가 무엇인가를 밝혀 그 길을 가면 된다는 요지의 답변이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관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전국경찰무도대회가 원칙적으로 협회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다는 것과 대통령기 쟁탈 전국대회의 규모도 종목별로 구분해서 확대, 민족자전으로 발전시킬것에도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또한 예비군 훈련시간에 투기경기인 태권도 수이 포함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자는 충청남도 정구 대의원의 건의가 축석에서 채택되어 새로 구되는 집행부로 하여금 전결토록 했다.



1972년도 협회 임원



회장 金 寅龍



부회장 朴 普熙



이사 嚴 雲奎



이사 李 載高 ✓



이사 金 鴻來



이사 李 敏廈



이사 尹 錫憲



이사 張 翼龍



이사 鄭 仁永



이사 金 鳳均



이사 朴 武昇



이사 韓 基旭



이사 韓 鳳洙



이사 崔 淳吉



이사 洪 鍾秀



이사 金 順培



이사 李 教允



이사 洪 正杓



이사 李 永燮



이사 張 台鈺



감사 李 啓光



감사 田 鉄

사무처

운영국장 金 琮秀
 서무부장 林 昌洙
 관리부장 郭 浩哲



体育은

사람을 맑고 깨끗하게 한다

柳 根 碩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미 생명과 같이 타고 나오는 (일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을 흔히들 (根源의 傾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원적 경향성을 타고나온 대로 마구 나타낸다면 우리 사회에 큰 폐를 끼치는 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때리고, 싸우고, 또는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무거나, 누구의 것이나, 서슴치 않고 가진다고 생각해보면 어찌 이 사회의 질서나 안녕이 유지되겠는가?

그러나 막한 것은 사람이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믿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전의 동물에서 부터 오랜 진화과정을 지내오면서, 싸우고, 때리고, 물고 뜯고, 가지고 싶은 것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가지면서 생활을 하여 오기 수 10만년을 지냈다고 보고, 그 동안에 이러한 버릇이 쌓이고 쌓여 뿌리 깊은 (경향성)으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 좋은 증거로, 원시시대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이 생활의 방도였기에 싸우고 물고 뜯고, 때리고 공격하는 따위의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동물 세계에서 봐서 짐작이 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차츰 진화되어 온 사람인 까닭에 오늘과 같은 으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바탕에는 이러한 습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 그것이 움트고 자라, 밖으로 뿜쳐 나오려는 심적경향이 있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있는 대로 털어 놓으면 사회가 문란해지고 안녕질서란 찾을 도리가 없겠고, 이것을 억누르면 욕구불만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막한 사

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하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체육활동을 잘 살펴보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때리고(부싱), 차고 밟고(축구), 덤비고 뺏고(럭비), 들머치고 머치고(씨름), 걸기고 치고 차고(태권) 하는 따위의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사회에서 못된 짓이라 혹평하고, 만일 이러한 짓을 한다면, (깡패)라는 이름의 악당으로 취급을 하나 똑같은 짓을 운동장이나 도장에서 할 때는 잘한다고 박수와 상을 주는 수도 있으니 이상하기 짝이 없다.

남을 치고 받고도 박수를 받고, 남의 것(공)을 뺏어도 잡혀가지 않는 이묘한 만 세상이 이 현실세계에 있으니 이것이 곧 스포츠란 이름의 가상세계(假想世界)라는 것이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용납이 되고, 운동을 하다 상대가 죽어도, 꿈에 죽인 것 같이 벌이 없는 세계가 바로 스포츠사회의 것이다.

이와 같이 체육활동은 험한 짓을 하는 데도 이것이 용서가 되고, 또 그런 짓을 학교나, 사회나, 나라에서 장려하고 있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생각을 돌이켜 보면, 사람이 타고나온 경향성에 그러한 씨앗이 있고 그것이 싹터서 돌아나오게 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을 만일 억누르면 욕구 불만이란 심적 긴장상태를 가지게 되어, 또 다른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스포츠 활동을 시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놓고 하게 해서 속을 후련히 풀어버리게 하자는 의도적 활동이라고 짐작이 가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타고나온 못된 바탕을 불사르고 깨끗하고 사람다운 바탕으로 꾸며 가려는 방법의

하나가 즉 스포오즈라 하겠다. 바꾸어 말한다면 사람이 날 때부터 묻히고 나온 목은 때를 씻고 닦아 멀끔한 사람으로 세탁하는 것이 즉 스포오즈라는 말이다. 워낙 쫄고 찌든 때라서 한 두번으로 말끔하게 될 리가 없으므로 씻고 또 씻고 해서 차츰차츰 깨끗하게 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타고난 바탕인 까닭에 <차고, 치고, 받고>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속을 풀어 가슴이 후련하게 함과 동시에, 목은 때를 벗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스포오즈가 사람을 정화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으며, 까닭에 학교나 국가가 힘을 써서 장려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은 스포오즈를 한다는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스포오즈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슈타인니츠(A. Steinitzer)가 말하듯, 스포오즈를 하게 되는 동기는 자기과시의 욕구에서 온다고 보고 자칫하면 배타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가 이겨야 좋고, <우리>가 승리해야 만족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기적인 요소가 짙다는 것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날지 못하는 이 활동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나>와 <우리>만을 아는 편협한 사람을 만들 우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1949년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올림픽위원회에서 정한(스포오즈·맨)의 행동규정에 <사육을 위하여 경기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겨도 쫄내지 않고, 저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라 하겠다.

이와 같은 희망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편협을 버리고, 상대를 긍정하는 사회성을 타일러 가꾸자는 데서, 나온 목적적 행동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좋은 예가(쿠우베루탄)이 말한 스포오즈의 본질이다.

<The important thing in the olympic games in not to win but to take part.>

<……. To spread these percept is to build up a stronger and more valiant and above all, more scrupulous and more generous humanity.>

이와 같은 말은 승리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

의 충고요, 스포오즈가 목적하는 참뜻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스포오즈나 체육은 심신(心身)의 활동으로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정신을 건전하게 하는 <사이코-모터 psycho-motor> 적인 교육활동인 것이다.

이것을 도식(圖式)으로 나타내면,

現實의 人間 → 理想의 人間

↑

身體活動

이라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소상히 표시하면

身體的·精神的·社 會의 未完成的 人間 → 身體的·精神的·社 會의 完成的 人間

↑

(體育) → 身體活動 ← (스포오즈)

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육이나 스포오즈는 위의 도식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수단이 되며 방법이지 결코 승리나 기술 연마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즐겨서 하는 태권도는 사람을 치려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매맞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앞서 말한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까닭이다. 도(道)라는 자는 엄숙한 교육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무사가 지녀야 할 온갖 성격과 정신자세를 굳게 하여, 의롭고 용감한 습기로 온 사람으로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태권도는 형에 치중하고 그 한 동작 동작을 신중이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태권은 공격과 방위를 겸유한 기술이 있으나, 여가의 공격은 상대를 공격하기에 앞서 자기를 공격하고 반성해서 사람이 되자는 정신적 뜻이 있어야 하겠고, 방어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막아 사람됨에서 벗어날지 아니 하려는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격은 의를 위한 것이라야 하고, 방어의 사(邪)에 대한 배제해야 한다. 이것이 곧 스포오즈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의 道로서 성립되는 까닭이 있다.



고구려의 태권



이 석 호

서론

동명성왕(東明聖王)이 고구려(高句麗)를 건국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당시의 여러 여건에 부응하여 태권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生成)했다.

태권도의 기원에 대하여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맹수들의 습격이나 다른 부족들의 침범, 또는 강자의 억압에 대한 자체방위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침략이나 개인간의 대결을 위한 보호책의 일환으로서 비록 원시적 형태이기는 하나 태권도의 필요성은 증대해 왔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피상적인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인간 자체가 지닌 본능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창세기(創世期) 이후 인류는 투쟁과 정복, 피정복과 굴욕, 굴욕에 대한 항거, 복종에 대한 반발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나아가야 했던 숙명적인 존재였다.

고구려국이 세워지기 전이나 그 이후에 있어서 태권도가 생겨나야 했던 필연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歷史的 背景

신석기(新石器) 시대를 벗어 나서 한반도에 금속문화(金屬文化)가 들어 오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5~6세기경으로 해아려지고 있으며, 이 무렵 가장 앞질러 발달한 곳이 고조선(高句麗)을 세운 대동강 유역이다.

그러나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漢)나라가 설치한 한사군(漢四郡)중에서 요동군(遼東郡)에 가까이 위치한 현토군(玄菟郡)은 압록강(鴨綠江) 중류 지역에 자리잡았으나 기원전 75년 경에 이를 내쫓고 고구려가 강대한 국가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 당시로 보아 하나의 커다란 전쟁의 형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무기라고 해야 창칼 아니면 활이 고작이었을 것이니, 적을 무찌르는 방법으로서 자연 손·발이 더 많은 작용을 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적과의 대결에서 손·발의 사용이 많았다는 사실은 바로 은연중에 태권도의 원시적인 형태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다. 하여간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고구려의 시조(始祖) 주몽(朱蒙)이 북부여에서 남으로 내려와 지금의 함인(桓仁) 지

방에 다 돌본부여국(卒本扶餘國)의 도움을 청하고 부족국가로서 출발하게 된 것이 기원전 37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보다 앞서 고구려 사람들은 수많은 과란곡절을 겪어야만 했었다.

주몽이 왕으로서 등극한지 불과 1년만에 비류국(沸流國)을 쳐 부셨고 송양왕(松讓王)으로 부터는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기원전 32년에는 행인국(荇人國)을 약취하였고, 또한 기원전 28년에는 북옥저(北沃沮)를 멸망시켰으니 주몽이 등극한지 10년 동안에 3개의 부족국가를 정복 병합하는 기염을 보였다.

이렇게 비대해 진 고구려국은 2대왕인 유리왕 22년, 기원 3년에 황인에서 통구(通溝) 지방인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마침내 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긴 이유로서는 한(漢)나라의 빈번한 침범이나, 또 다른 부족국가로 부터의 침입을 막아 내는 데 국내성이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졌다는 점일 것이다. 어찌 됐던 고구려국은 국가형태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자, 유리왕 11년 기원전 9년에 선비(鮮卑)를 쳐서 항복을 받았다. (註, 선비란

몽고족과 퉁구스(Tungus)와의 혼합족으로 유목하던 아시아 고대 민족으로 중국 전국시대 부터 흉안령(興安嶺) 동쪽에 옮겨하던 부족국가다)

또한 유리왕 33년(기원 14)에는 양맥(梁貊)을 멸하고 한(漢)나라가 소유한 고구려현(縣)을 공격하여 수중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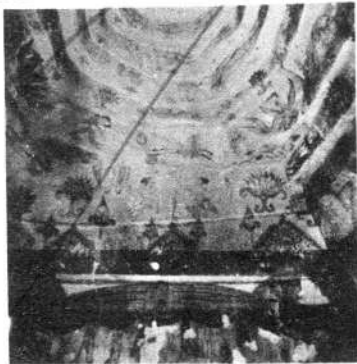
유리왕이 죽은 후 대무신왕(大武神王)이 3대왕으로 왕좌에 오른 5년 후에는 부여국을 쳐부숴들 뿐만 아니라 부여국왕까지 살해했으며 그로부터 4년 후인 대무신왕 9년에는 개마국(蓋馬國)을 멸하고 구다국(句荼國)까지 항복시켰다.

그러나 28대 왕까지 계승된 고구려는 705년 동안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왔었다.

동천왕 16년에는 위(魏)나라의 장수, 판구전(毋丘儉)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었고 의자와 4년(기원 645)에는 수(隨)나라 양제(煬帝)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안시성(安市城)을 공격하기도 했으나 끝내는 고구려가 수나라 군사를 물리쳤다.

이와같은 고구려국의 파란만장한 흥망은 고구려 백성들에게 참울심을 길러 주었으며 슬기와 용기, 그리고 무사들의 빛나는 투지력을 길러 주었다.

한천 제 6대 태조왕(太祖王) 이후 제 10대 산상왕(山上王)대에 이르는 동안 계류부(桂婁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소노부(消奴部) 등 五부족으로 국가체제를 형성했으나,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족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무기의 사용에 의한 것 보다는 주먹이나 발길질에 앞섰을 것임을 쉽게 추리할 수가 있다.

당시의 부족이란 지금의 마을과 마을 사이와도 같은 간격을 경계로 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기를 알세운 사용보다는 힘에 의한 손과 발의 사용이 앞섰을 것일 우리는 짐작해 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힘을 거루는 손과 발의 사용은 태권도의 원시적 형태를 이루고 나아가서 하나의 독특한 무술로서 태권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고구려 시대에 이미 태권도가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뒷 받침 문헌적인 입증으로 동맹(東盟, 東明)의식을 손꼽을 수가 있겠다.

동맹이란 원래가 부여국(扶餘國)의 영고(迎鼓)에서 유래했다.

영고란 한때의 농사를 끝낸 다음 12월에 행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었다.

그러나 고구려가 부여국을 손아귀에 넣으면서 부터 10월에 동맹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한다.

동맹행사는 거두어 들인 햇곡식과 햇과일을 차려 놓고 전 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국정을 의논하며 남녀노소가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그리고 힘과 기(技)를 거루는 것으로 환락의 극치를 이루었다.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羣 聚相就歌戲 以十月祭天 國中大会 名曰東盟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동맹이란 원시종교적인 민속의 식이면서 정치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힘과 기를 거루는 물론, 예술생활로 이어지는 문화의 한 단면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동맹행사를 좀더 태권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 힘과 기를 겨루는 종무속에 이미 씨름이나 태권도 경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705년간의 역사는 바로 싸움의 연속이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를 가름하는 대결 속에서 단 하루인들 긴장을 풀고 살 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국가적인 행사와 의식을 갖추는 동맹을 지켰다 함은 바로 슬기를 자랑함이요 아름다움을 숭상함이요, 넘치는 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평소, 호신을 위해서나 또는 국가적 요청에 따라 수련해야만 했을 태권도가 동맹행사의 한 종무으로 끼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일인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 주는 실례로서 근세 한국에 이르러 동맹행사와 같은 정월 대보름, 5월 단오(端午節), 8월 한가위 10월 상달의 고사를 지내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자기 그 의외와 행사 양식은 다를지라도 남녀노소가 놀이를 즐기고 체력을 겨루는 범국민적인 행사요 또한 체전이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가무(歌舞)와 회(戲)와 (체육)은 감정(感情) ↔ 정서(情緒)를 주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체육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체육은 감정과 정서를 길러 줄 뿐만이 아니라 대뇌피질(大腦皮質) 까지도 발달시켜 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으로 우리 조상들은 제절따라 베풀어 지는 행사나 의식을 통해서 비상한 직감력(直感力) ↔ 직觀力)

으로 오늘날의 과학이론을 이미 생활화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상 고찰한 것만으로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자랑스러운 유산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고구려 시대에 이미 태권도가 범 국민적인 행사 종목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진정 자랑이 아닐 수가 없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발행하는 <태권도> 창간호에 실린 “태권도사”를 보면 고구려시대의 고분인 무용총과 각저총 현실(玄室)에서 나온 벽화에 바로 오늘날의 태권도 형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두사람이 겨루는 장면이 있다.

이것은 바로 고구려시대에 이미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었음은 물론이요, 태권도가 발휘하는 놀라운 힘과 기의 묘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크나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입증하는 사실(史實)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고구려시대의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각저총(角塚)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벽화는 필자가 알기로는 3점이다.

첫째로 벌거벗은 알몸동이의 사내들이 사타구니만 가리고 씨름할 때 배는 사과 모양의 띠를 걸치고 두 사람이 양손을 벌리고 상대 얼굴을 후릴듯이 자세를 잡고 있으며, 그림 중간에 이상 아릇한 표현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림 위에는 해가 떠 있고, 사슴이 뛰고 있다.

두번째 그림은 서로 맞잡고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노인이 오른쪽에서 지켜보고 서있으며, 왼쪽에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으로 작은 집이 있다.

이 그림에서도 먼저 그림과 같은 표현이 가로 그려져 있다.

세번째 그림은 집안에서 서로 겨루고 있는 장면인데 높아 보이는 사람이 지켜보고,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옆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2000여년전 고구려 고분 속에 담겨져 있는 상기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슴치 않고 태권도의 기원을 고구려시대부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다.

각저총에 대하여 혹자는 이 그림들이 태권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씨름의 형상일 것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해석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해 본다.

태권도의 원형이 태전, 수박, 권법, 각저, 날과람

등으로 불리어 겹쳤고, 기술에 있어서도 씨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의 자처는 잡고 넘기는 것 뿐만이 아니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것처럼 손으로 일으키고, 발로 차고, 붙들어 넘기는 것 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태권도 원형의 명칭이 태권, 수박, 권법으로 표현 되었음은 바로 손으로 잡고 지르고, 발로 차고, 잡아 넘긴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벽화가 보여주는 서로 일으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는 역력한 태권도의 자세라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부가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앞에서 그림에 관해 설명하는 가운데 표형이란 말이 나왔으나 독자 여러분은 아마 이해가 잘 안 갔으리라 생각되어 다음에 그림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겠다.

이 표형의 그림은 자처에 있어서 하나의 공방술을 암호로서 표기한 것이다.

「1」의 표시는 서로 맞붙잡지 않고 손과 발, 몸의 동작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게 꼬리가 말린 것은 몸의 움직임이요, 중간에 끊어져 굽은 것은 발의 움직임인 것이다. 또한 긴 꼬리 부분에 가지처럼 돌친 것은 손의 공격을 뜻하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다.

그림 「2」의 표형은 가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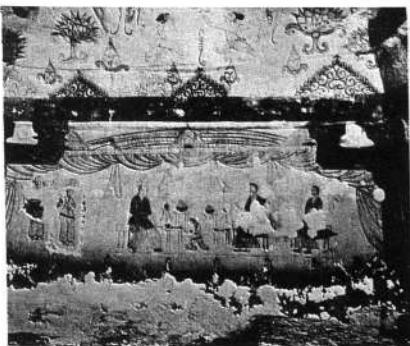


그림 「1」의 표형은 세로 하나가 있지만 그림 「2」의 표형은 3개와 반이 있다. 개수로 따지자면 7개가 되겠으나, 중간 표기를 연결하여 마주 거르는 것을 하나로 치기 때문에 3개 반으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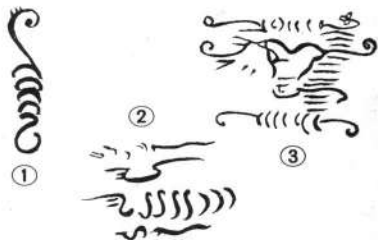
세로 있는 것과 가로 있는 것의 차이는 거르는 것과 승패를 가름하는 것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림 왼 쪽은 3개 (하나반) 오른쪽은 4개 (두개) 가운데 부분이 그림 「1」과 틀리는 부분이 또 있다. 이는 맞잡았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며, 넘겼을 경우도와 같은 표기를 한다.

이 그림으로 보아 승리는 오른쪽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왼 쪽보다 꼬리가 긴 표기가 하나 더 많기 때문이다.

이상의 충분한 사료(史料)는 우리 태권도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입증하여 주고 중국의 소림사(少林寺) 권법보다 200년 이상이 앞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입증해 주는 놀라운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이 귀중한 유산을 더욱 슬기롭게 배양하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아가 우리 후손은 물론이요, 널리 세계 여러나라에 알려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거듭 새롭혀야 하겠다.



태권도의

내일을 펼쳐다

— 흥 중수 김희익의황게 현황과 전망을 듣는다 —

◇ 태권도의 어제와 오늘 ◇

우리 나라의 태권도는 8 : 15 광복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그 체계를 알차게 갖추기 시작해서 어언 4반세기를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6·25 민족수난사로 인해 태권도가 겪어야 했던 애로점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하겠으나 월남전에 한국군이 참전함을 계기로 해서 한국태권도는 그 어느 때에 비교할 수 없는 「봄」을 국내외적으로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양상은 다소 달라진 느낌입니다. 해외사정은 차치해 놓고 국내적인 실정을 잠깐 살펴볼 때 태권도 인구에 적지 않은 변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연령층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권도 인구의 변동상의 실례로서는 도장수가 늘어난 관계도 있겠지만서도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수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의 변화상도 어린층이 많은 반면에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린층이 늘었다 함은 중학입시제도가 폐지되면서 온 현상일 것으로 보아지고 중·고생들이 줄어들었음은 치열한 입시 관계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비상사태 하에서 더욱이나 슬픔통일을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태권도는 마땅히 전투력을 기르는 수련과목으로 고등학교 이상에게는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태권도는 자연 그 인구가 증대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 일반 스포츠로서의 전환 여부 ◇

이미 태권도는 일반 스포츠로 그 위치를 잡았다고 봅니다.

원래 태권도란 손과 발을 사용하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어 스포츠로 전환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한정된 급소(공격목표) 관계로 해서 단조로운 경기운영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권도가 일반 스포츠로서 좀더 발전을 이루자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심판 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진박감과 흥분을 결드린 스포츠 경기로서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검토되고 연구하고 개발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협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마음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

◇ 태권도의 일반화를 위한 의견 ◇

태권도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반기는 경기로서 그 터전을 확실하게 굳혔읍니다.

우선은 군·경(軍·警)이 태권도를 필수 과목으로 수련하고 있음을 손꼽을 수가 있겠읍니다.

그리고 오는 73년도 부터는 전국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 까지 교과 과정으로 태권도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렇게만 된다면 태권도는 명실상부한 국기(國技)로서 자부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야말로 국기(國技)로서의 토착화가 완전하게 이루어 진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 호구 수련의 과학적 개선책 ◇

동양이나 미국을 제외한 서·북구라파에서는 스포츠오르가 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오락성이 결드려 있어야 한다는 철저한 태도입니다.

이와같은 태도는 동양 보다는 미국이 좀 나은 편이고, 미국 보다는 서·북구라파가 철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북구라파에서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거나, 경기 중에 선수가 부상을 입는 경우 경기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한 치료비 까지 사범이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 한국의 태권도를 세계의 것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호구착용은 필수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구가 그리 만족스러운 것이 못됩니다.

현재도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면으로 좀 더 합리성을 지닌 호구로서 연구개선이 이루어 져야만 하겠읍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기술전문위원회에서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호구의 개발이 머지 않은 것으로 그 기대가 자못 큼니다.

◇ 글을 맺으면서 ◇

태권도는 이제 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태권도로서도 그 구실을 다해야 될 단계로 접어 들었읍니다.

그럼으로 우리 130만 전체 태권도인은 정신적인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요, 뚜렷한 국가관을 확립해야 될 때도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협회에서는 일선사범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일반수련자들의 기술면, 정신교양면, 인격도야면에 있어서도 유감없는 체계와 기초공사를 이미 끝냈읍니다.

1971년 11월 19일 밤모스 협회 중앙도장의 기공식을 보았고 또한 일반 교제에 대한 준비도 완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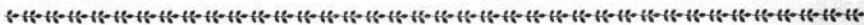
그럼으로 우리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성실한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야만 할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신 자세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체력의 소유자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과 연구심을 가져야만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태권도인 스스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른 자세와 모범의 상징이 됐을 때 온 국민들은 태권도와 더불어 즐겨 호흡을 함께 할 것이요, 태권도가 갖는 참된 정신이 온 국민의 자랑스러운 기풍으로 번져 가게 되면 우리를 태권도인만의 자랑이 아니요 실로 국가백년대계의 서광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풍을 온 세계가 반기게 될 때 한국 태권도는 바로 세계의 스포츠로서 인류명화에 크나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계의 조그마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태권도의 앞날은 넘치는 희망과 생동하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성원에 더욱 성원을 더하여서 태권도 한국,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한국이 즐거우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의 성원과 우리 130만 태권도인들이 힘을 합치고 또한 뜻을 하나로 묶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世界속의 韓國跆拳道

—東亞日報社 林學洙 體育部長의 探訪記—

東南亞를 비롯한 中東, 유럽, 美洲등지는 지금 한국 고유 무도인 태권도 붐이 대단하다. 한국태권도에 앞서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일본의 가라테(空手)의 강력한 세력 속에서 약전고두 10여년, 오늘날의 태권도는 가라테의 이름조차 태권도로 변용되고 용어도 한국말로 모두 통일되어 가고 있다.

이는 태권도가 고대 한국의 고유 무도에 뿌리 박고 있으며 해외에 나와있는 우리 사범들의 자질이 일본에 비해 월등 우수하며 과학적인 기초를 가진 스포츠로서의 체계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무도가 정부의 절대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일본의 세력을 완전히 누르고 순탄한 전진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사범들의 활동에 대한 정부 및 태권도계의 행정적인 지원이 보다 강력해야 될 것이다.

관직없는 외교관의 역할까지 도맡고 있는 우리 해외 스포츠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형은 무엇이며 그들의 활동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기로 한다.

〈홍콩〉

세계의 관광도시로서 중공의 유예가입으로 정치가 교의 도시도 겸한 홍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긴박감마저 감돈다. 이러한 곳에서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복서」다.

이곳 홍콩島와 구룡반도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가이퐁」 등 4개의 도장에서 金福万, 承剛勇, 奉煥根 등 세 사범은 1천 2백 여명의 문하생을 거느리고 있다.

중국 고유의 무예 실패계를 자랑하는 원주민들이 한국의 태권도를 가리켜 한국의 유일한 힘(복서)의 수출품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중순이

곳 H국민학교에서는 동남아 각국의 중요 수출품을 한 두가지씩 열거하는 공식 시험 답안지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 수출품으로 태권도와 인삼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태권도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다. 홍콩도에서 4백여명을 지도하고 있는 承剛勇 사범은 이외에도 경찰서와 8개 학교를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金福万 사범도 구룡도에서 奉사범과 3백여명을 가르키는 등 이들의 현지 위치는 확고하다.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YMCA에서 태권도를 습득하고 있는 연령은 11세에서 54세, 인종도 가지가지로 중국인, 말레이인, 싱가포르, 영국인 등이며 직업도 관공리, 기자, 회사원, 사공, 여급 등 다양하다.

도장에 들어서면 우선 정자(正姿)로 태극기에 엄숙히 경례, 「사범님 안녕하십니까」로 시작, 모두 용어를 한국말로 하고 있다.

구룡은파로에서 외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레이몽 왕씨(52)는 한국의 태권도를 즐겨 배우는 이유를(흔히 호신책에 불과하다고 하나 정신통일이 되고 초조한 마음이 사라져 큰일에 부닥쳐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자기 나름대로 한국 태권도를 칭찬했다.

홍콩에 오늘의 우리 태권도가 자리잡은 데는 「가라테」 침투와 사범들 간의 불화등 술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아름든 변화와 추잡으로 혼합된 홍콩 거리에는 오늘날도 한국의 무도 태권도의 우리말 고향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방콕〉

사원과 바고다와 승려, 3대의 도시로 그 모두가 호화스럽고 웅장하며 많은데 놀라움을 준다.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노소 중들의 모습은 거리 어느 곳이나 볼 수 있다.

이 신앙의 나라 「타이」, 킥 복싱, 축구로 생기를 찾

는 스포츠의 나라에서도 한국 태권도는 축구에 앞서 손꼽히고 있다. 태권도는 킥 복싱에 못지 않은 인기를 가진다. 5년 전만해도 맨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킥 복싱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돼 오다 처음 이곳에 나타난 2,3명의 우리 사범들과 기(技)를 겨루어 그 파괴력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방콕에는 7명의 사범들이 시내와 미군 주둔지 4개지역에서 640여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 도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태국인은 물론 영국, 미국, 케냐, 버마 등 외국인 공영사관원 가족들이 상당히 모인다. 金鎭成사범의 소개로 만난 스위스 「티덤」 회사 방콕지사 상무인 「J 로저」씨(40)는 필자에게도 「사범님」이라고 부르며 한국인은 모두 태권도를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는데 그는 2년간 수련 끝에 초단의 자격을 얻어 金사범의 보조역도 맡는다. 또 이 도장에는 미대사관 무관인 「아담」 대령의 3남매가 나오는데 올해 9살이 된 「샤리안」 양과 「윈드리」 「워터」(6) 군 등이 열심히 기법을 익히고 있다. 「윈드리」양(8)은 입관 9개월에 자머를 빼고 제법 익숙한 솜씨로 한국말 익히기에 안간힘을 다한다.

이곳의 가라데 칩투는 유난하다. 곳곳에 호화스런 설비의 도장을 마련 태권도를 누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범, 한국말, 한국 정신의 끈기는 「타이」의 방방폭폭을 강하게 뿜어 들어가고 있다.

〈이란〉

대사막이 건국의 태반을 차지하고 세계 제일의 석유 왕국인 이란은 서북에 소련 등과 접하여 2,500만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의 양성에 한국 태권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란 육군 공수특전단의 각 부대에서 차출된 교관후보생들은 하루 4시간씩의 태권도 훈련을 받고 있다.

교관단은 육군본부 사령부 소속 金수련 소령, 김정훈대위. 이란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3일 이곳에 온 이들은 이란 육군 공수특전단 영내에서 짧은 휴식 시간 외에는 태권도의 역사와 더불어 技를 습득시키기에 열심이다.

당초 6개월 예정으로 초청되어 온 우리 사범들은 아마 더 오래 머무르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이란인들은 레슬링을 국기로 하고 있어 상체는 발달되었으나 하체가 약해 태권도 습득에 어려움 점이 되고 있다고.

한때 이란 정부는 일본의 가라데를 군대에서 습득시켰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해, 우리의 태권도를 가



김수련 소령(右) 김정훈대위(左) 박일업교관(中)

르치기로 했다고 하며, 우리 사범들은 이 기회에 한국과 이란의 외교적 친밀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그런데 지난 6월까지 이곳에서 이란 국왕 앞에서까지 태권도 시범을 보인 바 있었던 成 광식사범은 얼마동안 귀국했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부대접을 받고 있기도 했다.

아직 도장을 마련하지 못한 成씨는 태권도 수련을 원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진의를 깨우쳐 줄 기회가 없다면서 초조해 했다.

석유와 더불어 금은보화를 넘쳐낸 간직하고 여가를 스포츠로 즐기는 이란인들에게 한국의 태권도는 두 나라 국민의 친교를 위해 더 많이 훌륭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로마〉

고대로부터의 문물로 가득차 유럽의 박물관으로 통하는 로마, 로마인들은 베네누티를 누른 金基株 정도로 한국 스포츠를 이해하고 있었다.

「유고」에 까지 한국 태권도를 전파한 朴宜在 사범은 그의 두 동생들과 로마를 비롯, 이태리 전국 7개소에 도장을 차려 1,200여명에게 수련시키고 있었는데 이미 18명의 유단자를 냈고 그중 한명은 도장까지 내고 있었다.

朴 사범은 「로마태권도 센터」에서 308명 막내동생 朴 春雄 사범은 380명, 둘째 朴 英吉 사범은 「토리노」에서 420명을 각각 지도하고 있었다. 이들 삼형제들을 가리켜 교포사회(약 120명)에서는 이태리에 한국의 얼굴 심는 「힘의 3총사」로 부른다. 그들이 가르치는 도장에는 젊은이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노년층이 더 많이 온다고. 변호사, 교수, 사장 등이 한국



「이태리」태권도협회 임원 및 선수들

국기를 익히려는 목적은 복잡한 문명생활에서 인간을 찾고 정신을 가다듬기 위한 수단으로 태권도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고.

חסא법은 도장 외에도 현병대, 경찰서 등 수사요원들에게도 순회지도를 하여 1인 3,4명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유고〉

68년 4월 이태리에 태권도 붐을 일으키고 있던 חסא법은 소문을 듣고 초청한 유고의 한 청년스�포츠 단체의 권유에 따라 한국인으로는 처음 공산국 유고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2년여 동안 유고 17개 대도시에는 1,300여명의 태권도 수련자가 חסא법의 순회교육을 받거나 12명의 유단배출로 자기들끼리 기술을 주고 받고 있다. חסא법은 우리말이 공산권에 까지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의 무도를 익히게 하고 있는 것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라고 남모르는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유고는 비교적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나 청장년들의 옴주벽등으로 문란해 질 우려가 있자 태권도 등 스포츠로 심신을 수련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우 관광비자로 「유고」를 드나들었던 חסא법은 사람의 왕래가 어려운 공산 세계에 태권도 덕으로 자유 왕래하게 된 것 역시 크게 자랑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현〉

유럽 제일의 산업국인 독일, 제 2차대전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근근히 과학기술로 일으킨 독일인들은 생활의 합리화와 더불어 스포츠도 합리적으로 즐긴다. 따라서 우리의 태권도도 그만큼 합리화된 것이 아니라면 먹혀들기 힘들었을 것이다.

7년전 權在化, 徐允男, 金광일 등 3명이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에 왔을 때는 일본의 가라데.

무도 등을 제압하기에 무척 힘이 들었으나 權 재화 사범은 지금 「프랑크푸르트」에도 도장을 갖고 430여명의 수련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金사범은 150명, 徐사범은 「뮌헨」 교외에서 463명의 수련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배우고 알겠다는 독일인의 열성에 부응하여 태권도는 유럽 어느 곳보다 잘 먹혀 들고 있다고 徐 사범은 말한다.

徐允男사범과 함께 있는 宋 재영사범의 도장에는 「이태리」에서 유명한 「친자노」 주정회사의 독일 총대리점 사장인 「폰데어베르트」씨(54)와 그의 적수가 될 기량을 갖춘 「쑤머」여사가 있어 이들 노장들의 실기광경은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들에게도 오히려 감동을 줄 정도로 엄숙한 매가 있다고 사범으로서 이국에 나와 있는 보람을 이야기 한다.

독일연방 정부는 현재 權在化사범을 「연방정부사범」으로 임명하여 하루속히 태권도를 보급시켜 타국인의 도움없이 태권무도를 익힐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사범들도 과별 싸움은 대단했던 모양, 그러나 지금은 어느정도 완화되었고 3만여명에 이른 태권인을 길러냈는가 하면 40여명의 유단자도 배출했다.

〈빠리〉

「유럽」 각지에 한국의 태권도와 유도가 발을 붙이기 시작한지도 어인 5년여에 접어든다. 현재 「스페인」 「셀레마이아」에 태권도 센터를 2년 전에 마련하고 2천여명의 회원과 아침 저녁 1시간씩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조 용식사범, 「오스트리아」 「틴스 보르드」시 「스치니」 스포츠 센터에서 1년 6개월 전부터 1,350명에게 태권도 붐을 일으키고 있는 李경명사범의 3명의 태권도 사범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가라데의)을 받으며 한국 태권도를 보급시키고 있으나 20여년 전부터 깊이 뿌리박은 일본의 「쥬도」인구로 인하여 3명의 한국 유도 사범들은 「유럽」 각국의 수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프랑스」 남부 소도시에서 실력(프랑스인도 인정하고 있다)만을 생명으로 삼아 한국 유도 보급에 힘을 다하고 있으나 20만 일본 「쥬도」인구를 이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유럽」의 어느 나라나 매한가지지만 특히 배타적인 「프랑스」,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우며 신비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어 세계 사람들의 동경을 받는다는 점을 자만하고 있는 「빠리」에 69년 6월, 가라데가 판을 치고 이어 2, 3단의 가라데 유단 자격을 취득한 「프랑스」인 도장까지 마련되어 있을 무렵, 李靚永 사범은 단신 가라데 도장을 찾아 다니며 한국 태권도의 시범

을 자정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했었으나 좌절의 경험도 여러차례였다.

한 「프랑스」인의 말신으로 「파리」에서도 수용 능력 이 큰 체육관에서 시범을 하게되어 가라테와 「쥬도」를 배운 관객들로부터 태권도의 파피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이로부터 초청 경기를 갖게됨은 물론, 끝내는 한도장에서 전속 사범으로 태권도를 보급하게 된 것이 오늘에 와서 「파리」 중심가인 「매더리 디이스」 도장 등 12개 도장을 순회하며 그간 3,200명에게 보급시켰다. 현재 1,150명을 가르치고 있다.

李사범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위험과 육체적으로 아슬아슬한 위험을 수차례 겪었을 뿐 아니라 현재도 그 위험은 가시적임도 있다고 말한다.

일본 가라테가 15년 동안 유행을 선풍해 오다 서독, 스페인, 이태리 등지에서 태권도에 자리를 뺏기자 이곳 파리에서만이라도 고수하기 위해 22,000명의 가라테 최현을 배경으로 부단의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전만해도 일본의 가라테 고단자가 파리에 계획적으로 들러 李사범에게 도전해 왔으며 그때 다시는 도전할 생각을 못 갖도록 신체 장애를 받을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고. 실력으로 제압한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태권도는 가라테와 동등의 위치에 올랐고 그들이 공존 무드를 일으키고 있을 정도다. 李사범은 태권도가 월등히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도장마다 가라테 4,5단짜리 보지자들에게 청·홍 띠를 주고 가르치고 있으며, 태권도 위력이 비교가 안되게 훌륭하다는 점은 그들이 체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1월 18일 저녁 「마피아수스」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던 성양양(20)양은 멀지않아 흥미를 따져 될 정도로 자신이 생겼다고 호뭇해하고 있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는 이유를 묻자 남동생이 가라테 1단인데 우연히 태권도 시범을 보고 전향 자기에게도 태권도가 낫다고 권유를 해서 배웠다는 것이다. 양은 또 태권도를 배운 이후 정신적 안정감과 육체적 활달성이 좋아져 친구들에게 권유, 이 도장에만 8명의 여자가 회원이 됐다고 자랑했다.

「쥬도」인구 20만, 가라테 2만에 달하는 프랑스에 우리의 태권도는 이제 발을 붙이고 힘있게 일어가고 있다.

〈런던〉

영국 국민은 축구를 국기로 손꼽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쳐 거의 광적이다. 축구 경기장이 공원, 학교, 공장은 물론이고 골목, 빈터에서는 노소를 가리지 않고 축구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 또 거의 매일 TV에서는 축구 중계가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승마, 골프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로 미루어 國勢는 석양을 접고 있다고 하나 국민 생활은 마음대로 즐길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있는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까.

이러한 영국에 한국의 열을 전할 수 있는 스포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2년전 한 학생이 이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나 잘 전파되지 않았고 1년전 태권도 기량이 일부 영국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호신책, 절대 불가결의 무술로 인정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도장을 차려 문하생을 모집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못하다.

태권도의 위력을 기어히 보수적이고 자만심이 강한 영국인에게 보급시켜 보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영국 대도시를 전전하며 태권도 시범을 통해 애쓰고 있으나 아직 도장을 마련 못하고 런던에서 400km 가량 떨어진 킹슬랜드 아비市에서 학교와 YWCA에서 하루 2시간씩 가르치고 있는李기하 사범은 그러나 낙관적이다.

李사범의 실력과 태권도를 영국에 심어 놓겠다는 그의 열성이 대단하여 공관에서는 李사범에게 하루 빨리 도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 한국을 잘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스포츠(축구, 승마등) 교류와 문화교류라고 주장하는 이곳 고민들은 지난해 영국 여왕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리틀엔젤스가 다녀간 후 한국인에 대한 영국인의 태도가 달라졌으며 특히 中上流 사회에서는 鄭京和양의 인기가 대단한 것이라고 전한다.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이처럼 심어져 가고 있는 중에 한국 태권도 역시 새로이 인식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유고」의 朴宜在 사범 문화학생들



악작같이 전 세계 도처에 「유도」나 「가라데」 보급을 위해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있는 日本勢가 아직은 영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만큼, 우리는 수는 적으나마 태권도가 뿌리를 박기 시작한 것만 보더라도 자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뉴욕〉

세계 최대의 대량소비 문화를 자랑하는 미국의 심장 뉴욕, 21세기 컴퓨터 도시라 불리는 이곳 문명의 첨단단계에 세기를 달리하여 3국시대부터 발전해 온 한국 고유의 국기(國技)인 힘, 태권도가 마친무의 숲속에서 힘차게 고동하고 있다.

이곳 뉴욕에서 강사동 사범, 金 인문사범을 비롯, 조 시락, 신 현욱(7단), 손 덕성(7단) 등 5명의 태권도 사범들은 거의 중심가에 도장을 마련하고 2,600



서독「다하우」태권도센터와 송재영사범

여명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들 도장을 거쳐 간 인구는 21만. 더우기 이들 중에는 183명의 유단자(최고 3단)가 있으며 그중 8명은 독립해서 도장을 차리고 있으며 우리말 구호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밖에 도장은 없으나 YMCA 학교, 공장 등에서 초정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 태현, 권 오덕, 장진이, 이효운, 김진운, 김상수 이외에 4명의 사범들에 의해 한국의 힘(태권도)은 뉴욕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

24일 오후 뉴욕市 중심가인 퍼스트 애비뉴 1487번지에 〈유니버시티태권도장〉을 마련하고 현재 365명의 초보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김 인문 사범은 연세대 시절에 우연한 동기로 태권도를 배웠는데 유학 와서 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8년전부터 미국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왔다는 金사범은 당시 일본의 「유도」와 「가라데」의 도전 파정을 벗어 나기까지에는 쓰라린 길을 걸었다고 술회하며 가라데를 쓸

르고 있는 것은 태권도의 우월성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장에서는 손이 모자랄 정도. 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45%가 변호사, 대학교수, 의사종이고 FBI, CIA 경찰이 많이 찾는다. 또 벤프리트 장군과 모피 상원의원은 자진해서 매년 4월 전 美國 태권도 시범대회에 회장단에 들어 있는데 회장에는 벤프리트, 모피 의원은 부회장이다.

이들의 취임은 8년전만 해도 가라데勢가 융성하던 것이 이제 완전히 태권도가 판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한다.

「월드로드노스텔」에 자리잡고 있는 趙時學 사범은 현재 293명에게 초보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중에는 20여명의 부녀자들도 있다.

이들 부녀자들은 「보신」 외에도 뚱뚱해지는 몸을 날렵하게 하는 육체미용의 목적으로 태권도를 익히고 있었다.

사범의 가르침에 따라 맘을 풀린 후 목욕을 하고나면 마음도 쾌적하여 더없는 건강의 비결이 되고있다고.

〈워싱턴〉

한국의 태권도가 한 기업으로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곳이 「워싱턴」DC였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태권도가 보급되고 있었으며 그 반면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게 운영되고 있다. DC를 중심으로 金基璜 李俊九 김기하 차승영 이수용 사범들이 각기 도장을 마련하고四千三百여명에게 태권도를 익히고 있으며, 이미 도장을 거쳐 나간 수는 二萬三千여명에게 달하고 있다.

그중에는 一百五十여명이 유단자가 되어 도장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다. 태권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연령과 직업도 가지가지였으며 이곳에 특이한 것은 관가의 중심지인 관계도 있겠으나 미의회 上下의원들이 단체로 태권도를 몸에 익히고 있었고 변호사 교수층이 부쩍 늘고 있다고 李俊九 사범은 말하였다.

또한 金基璜 사범이 「실버스프링」에 「金스튜디오태권도장」을 마련하고 현재 三백六十여명의 회원들 갖고 있는데 그중에는 미국 스포츠중 가장 인기 경기인 풋볼선수의 「존 개슨」(월드스밍팀의 코트백) 韓國에도 다녀간 미국 경호실 차장이며 「케네디」전미 대통령에게 암살당했을 당시도 경호임무를 맡았던 「넷도홀」씨(四〇)도 끼어 있었다.

「넷도홀」씨가 도장을 찾은 것은 六七년 五월 이었는데 입회 당시 교사의 신분으로 매일 태권도를 배우러 오다 六개월만에 경호실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金基璜 사범의 말이었다. 태권도가 인연이 되어 「넷도홀」씨의 주선등으로 정부요리관계자에 태

권도시범이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六七年말에 당시 「존슨」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다.

또한 DC 중심가를 비롯 九개의 「한국태권도장」을 마련하고 현재 一千六百여명의 문하생을 거느리고 있는 李俊九사범의 제자중에는 八명의 대학교수 十二명의 회사사장 七명의 변호사와 「앨버트」하원의장을 비롯 二十六명의 상원의원들이 태권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저명한 태권도 초보자들의 연령은 평균 50세로 그 모두가 심신단련에 적절한 운동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회에 까지 한국의 태권도가 파고들어가 있었으며 심지어 七〇年十二月六일 상원에서 「영」 의원은 미국의 고등학교등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습득하도록 권유하는 발언을 한것이 상원의회록에 수록까지 되었었다. 「워싱턴」DC는 「흑과 백이 밤과 낮을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는 곳이기도 하지만 韓國의 태권도는 시간에 거리낌 없이 보급되고 있었으며 도장마다 흑백인이 즐지어 찾고 있었다.

그리고 六七年 十月十五일 태권도 파월교관단의 일원으로 월남에 갔다. 六八年 一月三十一日 「구정」 「사이곤」에서 「메트루」에 남치, 그해 二月四일 탈출하여 「크메르」국경에서 잠점으로 오인 체포, 六년 징역형을 받고 북越중 정부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석방되어 군에 복무하다 七〇年 六月에 제대한 박정환사범이 지난十一月 이곳에 와서 현재 「실버스프링」 금스튜디오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고 있는데 박사범은 한 마디로 한국태권도가 이토록 미국사회에서 잘 먹혀들어 가고 있을 줄은 의외라고 말하고 이곳 도장을 찾는 사람들은 그 모두가 진지하고 착실하게 우리 태권도의 진리를 깨닫고 몸에 익히기위한 열에 감동했다고 밝히며 이 기회에 韓國의 열을 태권도를 통하여 미국사회에 뿌리깊이 심겠다고 다



전국도 사범의 문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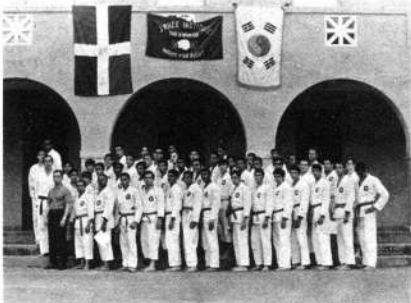
집하였다.

또한 九개도장을 마련하고 한 기업으로써까지 발전시킨 李俊九사범은 七〇年 中美 「도미니카」에 도장을 마련 현재 四百三十명의 회원을 갖고있으며 三개월에 一주일간씩 머무르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현재 中南美에는 한국의 태권도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나 「도미니카」진출을 계기 삼아 점차적으로 中南美에도 韓國의 태권도를 보급시키겠다고 李사범은 말하였다.

한편 미국 동부와 중부지방에서 위세를 보이고 있는 태권도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호놀룰루」 등지에서는 二十여년 가까이 日本의 「가라테」가 뿌리깊이 파고 들어가 있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호놀룰루」에 에취이바리스」에 도장을 마련하고 二百十여명의 회원들에 매일 二시간씩 태권도를 가르치고있는 전국도사범은 二년 전에 이렇 「하와이」에 왔을 당시 日本의 「가라테」에 눌려 약 三개월간은 단한명의 회원도 갖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二世들과 공관직원들의 자녀들에 태권도의 기(技)의 위력을 알리는 한편 二世자녀 부형들로 하여금 韓國 태권도가 日本의 「가라테」보다 월등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라는 간접적인 PR이 효과를 거두어 약 一年 전부터 회원이 모이기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현재도 가끔 日本의 「가라테」사범들의 실력도전을 받고 있다는 전사범은 실력만이 이들을 정복하는 방법이며 韓國태권도를 보급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준구 사범과 「도미니카」수련생들

몸담고 마음담고

시위소찬(尸位素餐)

박 주 석

옛 한서(漢書)에 시위소찬(尸位素餐)이란 문자가 있다.

죽은 조상을 추모하는 뜻으로 그 문중(門中)에서 어린아이를 조상 대신으로 앉혀 놓고 제사(祭禡)를 지낸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죽은 조상을 추모하기 위하여 자격없는 아이를 어른으로 대우하면서 껍상을 받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격없는 사람이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나라의 녹을 받아 먹는 것을 빗대놓고 하는 말로도 통용이 되고 있다.

아득한 옛날에도 할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나라의 녹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있었음은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었던 모양이다.

공무원은 나라와 백성에게 봉사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럼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아 드린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은 지급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자원으로 하는 봉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들이 이렇다 하게 응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이겠는가? 이러한 일은 일반 개인 기업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다방에 나가 코오피 한잔 마신다고 한, 두시간 허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점심시간에이 핑계 저 핑계로 어물어물하다 들어와서는 월급월급 시계만 걸눈으로 살펴져 퇴근시간만 기다리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현상과 이와같은 무리를 빗대놓고 하는 말로 시위소찬이란 문자가 알맞게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소찬의 현상을 남의 말처럼 태평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태권도계를 잠깐 살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가령 위조된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간판으로 내세워 놓고 수련생의 지도는 아랑곳 없이 도장비나 받아 먹는다면 이것이 바로 시위소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실력없이 사범이나 관장 자리에 앉아 큰 소리나 치면서 터무니 없는 허세만 부리고 있는 위인들이 과연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지 의문스럽다.

사범으로서 제자를 지도 육성한다는 것은 의무요 사명인 것이다.

사범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한 후에 댓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지 않고서는 사범으로서의 사표(師表)를 다했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사범은 제자를 위하여 충실하게 지도하고 또 다음 단계의 지도를 위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칭 잘 가리쳤다고 자만하기에 앞서 또 새로운 지도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할 줄을 알아야만 하겠다.

이러한 태도와 이와같은 연구심만이 태권도 주변에 스며드는 시위소찬을 몰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항상 자기 노력에 대하여 높은 댓가를 바라고 있으나 노력이란 것은 노력 그 자체가 항상 평가의 기준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는 노력없이 어물어물 눈치만 보고 한몫 차지하려는 습성과 실력은 없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 허세만 부리고 실어하는 고질적인 관념과 타성을 과감하게 털어 버리는 참된 태권도인이 되길 다짐해야 되겠다.

명언

영웅이 아니면 영웅을 알아볼 수 없다. <독일 • 괴테>

1971年度 最優秀選手

—심사경우—

대한체육회에서는 매년 각 경기종목 별로 그 해에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아 시상하는 체육회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으로 각 선수들은 체육회가 제정한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연말에 이르러 본 협회에서도 일년동안 각 대회를 통해 우수한 선수를 뽑아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와 단체「팀」을 천거할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단체「팀」선정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개인 우수선수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었다. 체육회상 시상에 있어 개인선수는 각 경기별로 단 한 사람이란 규정이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근래에 와서 태권도는 비록 남자들만의 경기라 아니라, 여자선수들의 수도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또한 남녀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남자 선수 단일선수에 의의가 생겼다.

이리하여 천거 과정에서 장시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개인선수 부문에서 남·녀 두 사람의 복수천거로 낙찰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천거된 선수로는 남자에 고동부「푸라이」급 이 천주와 여자부에서 남궁영석이가 있다.

비록 체육회상의 영예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여자부 남궁영석 선수의 영예는 체육회상을 받은 것 못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명기해 둔다.

그리고 단체상에는 동산중학교「팀」이 의미있는 결정되었음도 아울러 알려 주는 바이다.



이 철주 (동산고, 18세)

우승경력: 전국체전 고등부
중·고·대 개인회
우수선수선발대회

—우심소감—

꿈만 같습니다.

이 영광을 부모님과 저를 길러 주신 사립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선배님 그리고 동료와 후배가 많은데도 이번 체육회상을 제가 받게 됐음은 그저 충구한 생각이 앞선 뿐입니다.

이 영광을 거머 가슴 속깊이 간직하고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하게 태권도 수련을 쌓아 부끄러움이 없는 태권도인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이 영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선배님들의 따뜻한 성원이 계속 뒤따라 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의 몸임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업에도 좀더 충실해서 태권도 수련자는 육체적인 편만이 아니요 두뇌면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크게 자랑해서 태권도가 지닌 본래의 참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꼭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영광을 차지 했더라도 아니라 태권도야 말로 다른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인격도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의를 랑해서 비효와 같은 부지가 있고, 정의를 향해서는 여건 양허된 그 목적까지도 서슴치 않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태권도인의 기풍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실현할 작오가 언제나 제 귓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최도록 많은 사람이 태권도 수련을 쌓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를 저는 강조합니다.

護具競技와 非護具競技

— 호구경기를 권장하면서 —

강 한 성

태권도 경기에는 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된지도 어언 10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많은 종류의 스포츠 가운데는 투기경기의 종류가 몇가지 있다.

투기라 하면 평소 연습시나 경기시에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 이를 방지하기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

투기 종목으로서는 레스링, 복싱, 유도, 씨름 등을 손꼽을 수 있겠으나 태권도처럼 위험도가 많지가 않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위험도를 방지하고, 경기를 정정당당히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호구(護具)이다.

경기에 임한 선수는 무엇보다 앞서 안도와 안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선수 자신이 가진 최대의 기술과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

또한 상대방의 여하한 공격에도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술한 조건은 모든 아마투어 스포츠에 적용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마음껏, 그리고 힘 있는 대로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부상을 주지 않게 한다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예를 들어 어떤 사이비 태권도인은 상대방급소 한치(一寸) 앞에서 공격을 견지하는 규칙을 주장하는 마위이다.

이는 아마투어 경기의 정의불 모르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이, 자기가 평소 탁은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부상을 입혀서도 아니 되고, 또 입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권투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아마투어의 경우 8온스의 쿠션이 있는 클립을 껴야 하고 또 헤드·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입게 된다면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가 강건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한다는 그 원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호구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호구를 착용한 선수는 경기에 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아낌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호구 착용에 대한 것이 비단 한국 태권도 뿐만은 아니다. 우리 태권도와 유사한 일본의 『가라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호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으나 이렇다 할 호구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그들이 착용하는 호구는 호구 자체의 무게가 너무 나가고 있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호구는 일본의 호구보다 간편하고 입어서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구태여 우리 호구의 힘을 잡는다면 경제성을 너무나 염두에 둔 탓으로 품질 자체에 다소의 문제성이 있다는 점이다.

재정 사정이 허락한다면 보기에 좋고, 또한 착용하기에도 견고한 것으로 개조해 나갈 필요성이 따르는 것 뿐이라 하겠다.

태권도가 지금 세계 각국으로 눈부시게 보급되어 나가고 있으나, 한편 그곳엔 식견을 알세워 이에 잡음을 일으키는 인사가 없지도 않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으로는 태권도가 세계 정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구 착용을 절대로 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동양인과 구라파인의 체격이나 신장에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두째로 작은 체구의 동양인이 체구가 큰 구라파인을 기술적으로 누르려면 멀리 빼여 놓고 헛기술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꾀변이다.

내가 눈을 감아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눈 뜨고 있는 상대방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보지 못한다는 식의 이론이다.

우리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은 모두 어리석고, 우리 민족만이 현명하다는 따위 어리석은 사고방식은 하루 속히 지양해야 될 줄로 안다.

인간은 부단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만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개발을 위한 실천을 통해 계속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고 개혁해 나가는 길만이 발전과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필자는 굳게 믿고 있다.

각기 다른 색깔의 피부와, 외상이 상통되지 않는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같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안전하고 안이한 생활을 꿈꾸는 것 역시 어

는 민족에게나 공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더욱이나 싸우는 상대방을 '이겨야 하겠다'는 신념도 다룰 바가 없다고 볼 때 어찌 우리만이 훌륭한 생활과 사고력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만이 태권도의 정상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다고 감히 누가 단언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우리는 태권도의 종주국인가? 종주국이면 종주국으로서 무엇인가 다른 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여 무언가 다른 점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호구를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착용하였으니 그대로 이것을 세계화하자고 고집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거리로 내세우려는 생각도 아니다.

그러나 아마투어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고집만은 끝까지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으로 호구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자 도 선수들에게 한결 같게 호구를 착용시켜야만 하겠다.

지난 1971년 여름 월남 청소년 선수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월남선수들은 호구착용 경기에 전혀 경험이 없다가 비로소 한국방문을 통해 호구를 처음 보았고,

또 이를 착용해 보았다.

그리고 월남선수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호구착용을 통해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월남에 있어서도 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니 귀국 후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과 협의하여 본 협회에 호구 200벌을 주문해와 본 협회에서는 이를 보내준 일이 있다.

이렇게 호구에 대한 문제는 비단 한국이나 월남 뿐만이 아니고 서부독일과 오지리, 타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착용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럼으로 한국 태권도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고 있는 인사들이 헛된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호구착용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겠다.

그렇지만 아마투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원칙은 정해져야 하고 개량할 점은 서슴치 말고 개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고 한국의 얼을 태권도를 통해 심고 있는 여러 사법들도 주저없이 호구착용을 실천에 옮기어서 태권한국의 소망찬 앞날을 굳게 다져 나가야만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軍跆拳道

이 석 호

태권도는 무기이다.

투기인 관계로 적을 무찌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태권도가 발생한 그 군원이 외부로 부터의 적을 무찌르고 자기자신이나 국가를 지켜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어 온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 국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듯이 만큼 많은 수의 군인들이 태권도를 필수과목으로 수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태권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자신의 한몸을 지키는 물론, 국토방위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어수단의 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가 지닌 기술면에서 다루어 볼 때, 현재 우리 국군이 배우고 있는 태권도가 과연 전투상에 필요한 기술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태권도를 배우기 위한 기술이냐가 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군인이 배우는 태권도는 오직

작전상에 필요한 태권도이어야 하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국군이 채택하고 있는 태권도 교본(ST 28-1·1966년 7월 1일자)을 중점적으로 들추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필하고 부대로 배치된 후, 태권도 교육의 실제적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훈련소에서 전, 후반기를 통하여 10주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태권도 교육에 할당된 시간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일까.

하루에 한 시간씩 할당되면 10주간의 훈련기간중 70시간의 태권도 이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다시 민간 도장에서 수련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2개월하고 10일간이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쌓은 실력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는 대개 짐작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부대캐지를 받은 후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기도 하자.

충실하게 일과를 마친 다음 매일 한시간 30분씩 수련한다면 제대할 때까지는 2단에 가까운 실력을 양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3년 복무기간중에 과연 충실한 수련을 할 수 있는가는 적지 않은 의문점이 있다고 하겠다.

군에서는 태권도만을 수련할 수 없다는 어려움 점이 있다.

또한 태권도 수련시간에 비상이 걸리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외의 특수훈련, 휴가 등도 감안해야 될 것이니, 전 기간을 통해 초단 정도의 실력양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지.

여기에 한가지 첨부해 둘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초단을 얻었다 치고 그 실력 평가에 대하여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겠다.

군에 입대하여 태권도 교육을 받을 때는 일반사회도장에서 받은 급수나 단의 실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군은 군으로서의 전투상에 실효를 견출 수 있는 효율적인 태권 기술의 지도방법이 반드시 앞서야 하겠다.

그런데 ST 28-1 교재에 의하면 일반 사회의 교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정상적 기본을 배우고, 또 제충적인 형을 배우고,

또 대련에 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일반사회도장에서 지도하는 방법과 다를 것이 없다.

첫째 주먹을 쥐는 법을 비롯 호신술에 이르기까지 과연 군 태권도로서 적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지?

군은 단을 얻기 위한 태권도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군의 태권도는 단보다도 적을 무찌르고 자기를 처음으로 방어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 태권도 교재는 어딘가 적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 형이 무려 20개나 있다.

형 동작에 있어서도 최소 동작수인 19개 동작이 하나 있고, 20여개로 부터 심지어 68개 동작에 이르는 엄청난 것도 있다.

형이란 몸에 완전히 익히기 위하여 매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형을 순서만 외우고 진행선을 따라 연무하는 것으로만 착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하나의 형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몸에 익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형에 통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68개 동작을 연결한 형의 순서만을 외우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ST 28-1에 실린 형 20개를 모두 지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리이러한 형이 있다고 소개한

정도로 본다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할 때 상기한 형의 내용이 분명히 교제에 실려 있는 이상 의당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할 성질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형은 가지수가 많다고 반듯이 좋은 것이 아니요, 상대를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 습득의 습성화가 문제된다고 본다.

적을 공격할 때 재빨리 정확하고, 강력하게 때려눕혀주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 태권도는 교육에 필요한 중요 문제로서는 일격 필살의 힘을 길러 주는데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령 주먹(正拳)과 찌르기(貫手), 장칼(手刀), 이 세가지는 손에서 변형되는 기술이다.

이 세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타력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세가지 다 위치, 방향, 그리고 자세와 부위에 따라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할 수가 있겠다.

역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한다면 찌르기가 가장 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힘이 집중되는 곳의 면적이 좁을 수록 힘의 위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칼(手刀)에 대한 이론은 인체기능학적인 견지에서는 팔을 안으로 오무리는 것이 밖으로 벌리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칼의 위력이 강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주먹(正拳)이 가장 위력이 크다고 내세우는 사람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역학적 이론으로서서는 풀 수 없는 각(角)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각은 관절(關節)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축(軸)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축이란 인체에 있어서는 척추를 말하는 것이며 팔에 있어서의 축이란 어깨 부분에서 팔과 연결되는 관절을 말하는 것이다.

각(角)과 축(軸)이 있는 관계로 일반적역학(力学)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만은 여기에 밝히 둔다.

그러나 찌르기, 장칼, 주먹 등 세가지중에서 가장 위력이 강한 것이 주먹이라는 것을 여기에 강조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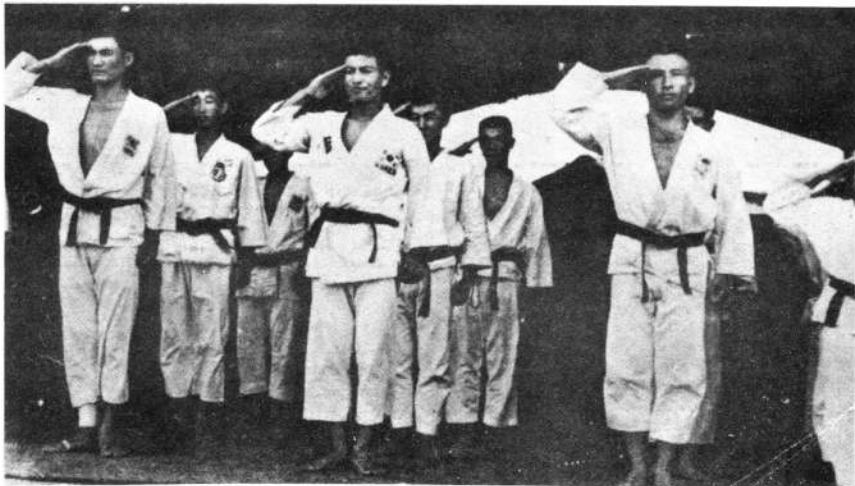
기술적인 이론은 지면 관계상 여기서 멈추고 다음 기회에 다른 지면에 논하기로 하겠다.

위에서 말한 바 군 태권도는 적을 일격에 쓸어 쓰러야 한다는 원칙에서 다음의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 ① 손으로 변화하는 공격기술의 기초방법
- ② 방어에 필요한 손의 변화
- ③ 발로써의 공격 방법
- ④ 몸을 자유로히 이동할 수 있는 기초 동작
- ⑤ 적의 몸과 맞 부딪혀 안았을 때의 공격방법
- ⑥ 무기를 갖인 적을 급습하는 방법 등

이상의 기초 동작을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보충할 것은

- ① 민첩성↔반응속도
- ② 유연성↔순발력



③ 축력→타력

④ 근력→지구력.

등을 보충하여 체력을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손과 발의 축력과 타력을 우선적으로 기르고 다 음에 반을 속도에서 오는 눈치(눈이 빠르다는 것), 몸을 만들기 위한 근력 등이 필수 요건이다.

이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 질 수 있는 시간상의 문제점은 ST 28-1의 교재 보다는 훨씬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개념적인 이야기 처럼 표현했으나 한 마디로 말해서 짧은 시간에 강력한 척을 충분히 배려 할 수 있는 간략한 기술만을 습득시킨다는 것이다.

군은 너무나도 큰 조직이다. 그러나 개개인을 배 어 놓고 한사람의 심정을 분석할 때 과연 태권도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도 많겠으나 개중에는 제모름을 부리는 병사도 있을 것을 감안하여 지루한 것을 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긴 하겠 지만 같은 실효를 두기 위하여서는 만인이 염증을 느끼지 않는 방법도 좋다고 보겠다.

현재 국내에는 태권도가 범 국민화하여 국민학교 어린이로부터 각급 학생은 물론 일반 노인 부녀자를 까지도 수련을 하고 있다.

사회에서 시작된 태권도가 군에 가서도 다른 기술 을 배운다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자기 다른 유파에 의하여 일관성 없는 태권도 형을 배우고 있다는 것 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태권도를 통괄하는 단체는 대한 태권도협회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따 지고 보면 큰 차이없는 기술이론에서 동작하는 연무 선의 차이로 <무슨 류다>, <무슨 파다>하여 파벌을 조 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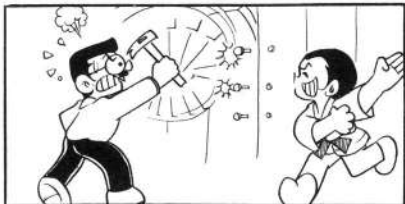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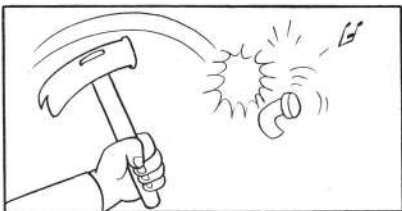
군에서 채택한 교본을 살펴 보아도 기본 이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구배어 깊히 따지고 본다면 불필요한 동작이 몇가지 더 있다는 것 과 공상적으로 그려낸 허술한 이론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실질성을 숭상하여야 할 우리 민족 의 사명으로 보아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이다.

끝으로 군 태권도의 발전을 비는 마음에서 한마디 더한다면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채택하여 군 태권도 의 개혁을 이루기 바라며, 그리하여 여기 몇가지의 안을 제시해 보았다.

조국에 바친 영현들의 명복을 경건히 비는 바이다.

연재만화 **공돌이** 최현희



1971年度 女子部 優秀選手



A組(二段)

南宮 명석

1952년 11월 3일생

서울 태생

수련연수: 6년

수련동기: 송구를 하다가 우연히 마음이 끌렸음.

우승소감: 기쁘다. 여자도 태권도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더욱 길러 가고 싶다. 앞으로 태권도를 통해 인격도야에 더욱 힘을 생각이다.

한국 고유의 무예를 수련함으로써 여권신장의 일익도 담당하고 싶다.

B組(初段)

송 봉호

1955년 2월 17일

인천 태생

수련연수: 1년

수련동기: 집에 아들이 없어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입장으로 태권도 수련을 결심했다.

수상소감: 무척 기쁘다. 태권도를 모든 여성들에게 좀 더 이해시키고 싶다.

앞으로도 꾸준히 태권도 수련을 쌓아 해외로 진출할 생각을 갖어 본다.

C組(1-3級)

김 옥자

1955년 3월 7일생

경기도 안양 태생

수련연수: 1년

수련동기: 평소의 호기심을 실천에 옮겨 봤다.

우승소감: 기쁘다. 오늘이 우승에 힘입어 더욱 태권도 수련에 전념 하겠다.

주위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참뜻을 깨우쳐 더 많은 태권도 인구가 늘어 나고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깨우치고 싶다.

A組 銀메달: 廉 恩實

銅메달: 최 춘희, 김 춘옥

B組 銀메달: 조 삼숙

銅메달: 홍 봉자, 안 정순

C組 銀메달: 최 종숙

銅메달: 장 정남, 권 영숙

내외 동정

엄 운규 사무총장 미국 태권도계 시찰!



엄 운규 사무총장(전 부회장)은 2월 중순경 서울을 출발, 약 1개월 예정으로 미국의 태권도계를 돌아보기 위해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태권도 대회에도 참석, 그 실태를 살피게도 될 것이며 대한태권도협회가 협회중앙도장 준공과 더불어 개최할 계획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사전 협의도 아울러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재단서 장학기금 10만원

— 김운용 회장에게 전달 —

1월 24일 한미재단 부총재 「도로서임·후로스트」 박사는 대한 태권도 협회 김운용회장에게 태권도협회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후로스트」한미재단 부총재는 한미재단 한국사무소와 고문단을 대신해서 장학기금을 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태권도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귀 협회의 사업에 참여 하고자 장학기금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주월 유 양수대사 서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도 놀라운 발전상을 이루고 있는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월 유 양수대사는 본 협회 김운용회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깊은 관심을 표했다.

유 양수대사의 서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매번 보내주신 책자 “태권도”는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 태권도의 여러가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단순한 신체연마 뿐만이 아니라 인격도야를 위한 건전한 국민운동으로서 태권도를 승화하고, 세계적인 운동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개척자적 정신을 발휘하자”는 귀하의 뜻에 깊은 공감을 받았읍니다.

부디 우리나라 태권도를 날로 육성시켜 국위의 선양은 물론이요 안보체제의 일익을 자랑스럽게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2년도를 향한 指標確定

— 2월 3일 理事会開催 —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1972년도의 사업확정을 위해 지난 2월 3일 체육회관 9층 제 1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김 운용회장 주재로 갖었다.

이날 이사회는 기술심의회 작분과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1972년도 정기총회 결과보고, 기술심의회위원회 작분과 위원회 세칙 심의, 기타사항 토의 등으로 의욕에 넘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성주사범 「미쉬간」으로 !

서 영철사범 「오지리」로 진출 !



태권도 수련에 젊음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17년 간의 경력을 자랑하는 김 성주사범(5단)이 미국 「미쉬간」주로 진출했다.

「미쉬간」주립대학교 초청으로 약 3년간 태권도를 지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6일 장도에

오른 것이다.

김 성주사범은 장도에 오르기 앞서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말했다.

“해외로 진출할 것을 상당히 오래전 부터 꿈꾸어 왔었습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들뜬 기분이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참 모습을 해외에 심고 또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로히 하기 위해 노력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점점 그 거리가 단축되고 또한 번창하는 교역으로 인류를 가로막는 장벽은 날로 낮아 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저의 생각은 배달민족의 특색을 태권도를 통해 부각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간 부산에서 태권도 지도에 힘을 기울이던 서영철(5단)사범이 「오지리」태권도협회의 초청을 받고, 지난해 11월 5일 임지인 「비엔나」로 떠났다.

약 1년간 한국태권도를 「비엔나」에 심게 될 서 영철사범은 그 포부를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임지에서 활약하는 동안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나, 또한 조국의 얼을 심는 민간 문화사절의 일원으로 그의 무를 있는 성의와 열의를 다해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스부르크」에서 활약중인 이경명사범과 힘을 합쳐서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참모습을 부각시킬 각오이며, 또한 귀국해서 일선 태권도 사범의 명예를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편 당 협회에서는 임지로 떠나는 서 영철사범을 적극 지원해서 현지에서의 활약상에 앞찬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외 동정

「과테말라」대통령 태권도 수련 ! 미 경찰간부「솔로몬」씨 방한!

중남「아메리카」에 있는 「과테말라」 공화국 「아라사 오소리오」(Arasa Osorio) 대통령(52才)이 현재 「과테말라」 공화국에서 태권도를 보급 하고 있는 김용덕(金用德) 한국 태권도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대한태권도협회에 알려 졌다.

「오소리오」대통령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현재 「과테말라」태권도협회 명예회장인 영식(永息)의 권유로 현직에 있는 국가 원수로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태권도 수련생이 되었다.

협회에서는 태극기와 협회 「마크」가 양가슴에 새겨진 태권도 도복 1작과 기념 「메달」을 준비 2월초에 외무부를 통해 「오소리오」대통령에게 증정하기로 했다.

태권도를 향한 불란서의 관심 !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저명한 무예잡지 Arts Martiaux의 여기자인 「오딜 마틴」(Odile Martin, 27세, 일본상주특파원) 양이 닷새 동안 한국을 방문 취재를 마치고 돌아갔다.

마침 전국여자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취재할 수 있었던 「마틴」

양은 대회의 거의 전부를 「카메라」에 담았으며 2일 동안 대회장소인 한성여고체육관에 와서 살다 싶었다.

아울러 유도 2단인 「마틴」양은 밖에서 생각하던 한국과 대조적으로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깨달았으며 한국사람들의 친절과 교양, 특히 한국 남성들의 활발한 건장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인상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오딜 마틴」양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일본 : 2-58 Haramachi, Shinjuku-ku, Tokyo, Japan

「프랑스」: Judo B. P. 25, Brest N 29, France



1972년 1월 8일, 약 1개월간 체류할 목적으로 태어난 미국 「뉴욕」주 경찰의 「리처드 솔로몬」(Richard Solomon)경감(44세)이 협회를 방문 얘기를 나눴다. 「솔로몬」씨는 「롱·아일랜드」시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도장을 갖고 있는 金洪燮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워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태권도인이다.

일찍이 「호놀룰루」에서 합기도와 유도를 배워 각기 3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씨는 약 2년 전 처음으로 金사범을 만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 작년 12월에 초단 「블랙 벨트」를 땀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고 말 하는 씨는 밖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좋아하면서 방한기간동안 하고 싶은 일은 협회장을 예방하는 일,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는 일, 그리고 중주국인 한국에서 태권도를 실제로 보고 배우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협회는 씨에게 방한 기념패를 증정해 주었고 「솔로몬」씨는 TBC TV에 나가 방한기간 동안,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솔로몬」씨의 도장 주소는 아래와 같다.

Korea Taekwondo School
45-10 Skillman Ave.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4
U. S. A.

—말레이시아—

일시 귀국했다가 돌아간 양 우엽(楊雨葉, 6단, 서울 성북구 삼양 1동 839-359)사범을 통해 「말레이시아」 연방의 한국태권도세(勢)를 알아 보았다.

현재 말레연방에 있는 총 태권도수련생수는 유단자를 포함하여 약 5,000명에 달한다. 현재 마래(馬來)에 있는 태권도 사범은 양 우엽사범을 비롯하여 이병무(李炳武) 6단, 김 중찬(金鍾贊) 6단, 최 익선(崔益善) 5단 등이다.

이번에 귀국했던 양 우엽사범은 「조호」지역, 「말라카」지역, 「사바」지역, 「사라왁」지역을 관할하는데 총 22개소의 도장과 약 1,300명의 수련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조호」, 「말라카」 그리고 동부지역에 각기 1명씩 한국인 사범을 완전 초청형식으로 초빙할 계획이며 「스본사」는 각 지역 협회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양우엽사범 수련생

—오지리—

오지리극 인스브룩에서 이 경명사범이 이끌고 있는 1971년도 Tirol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대회에서 가장 특기할 일은 구라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호구작용대면을 실시하여 많은 태권도인과 「에스름」으로부터 각광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날의 대회에는 「인스브룩」시장을 대신해서 Dr. Heidi 부시장이 참석했고 수많은 관람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전자들의 숨막히는 경기와 흥미진진한 시범이 있었다.

세 부문으로 구분되어 실시된 이날의 선수권대회는 먼저 행정기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공격과 방어의 조건하에서 수련되고, 표현될 수 있는 형 부문에 까지 이르렀다.



이경구 사범과 수련생

—서 독—

서독 「민헨」에서 한국 태권도의 보급을 위해 맹활약중인 김 광웅사범은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 지난해 11월 16일 마침내 시범대회를 열어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았다.

더욱이나 지난 11월 16일에 가진 시범대회에서 김 광웅사범은 일본 「가라테」가 도저히 추종할 수 없는 뛰어난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민헨」 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독국민들에게 한국 태권도의 새로운 지력을 보여 주었다.

이번 시범대회는 각 신문지상에 크게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 에디어까지도 동원되어 한국 태권도의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현지로 부터의 소식이다.

김 광웅사범은 앞으로도 꾸준히 대한태권도협회와 긴밀한 유대를 통해 서독 뿐만 아니라 크제는 구라과 전역에 걸쳐 한국 태권도의 참모습을 과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국위를 더욱 빛낼 작오라고 한다.

김광웅 사범과 도장포스터

내외 동정

—텍사스—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인식시킨다는 커다란 포부를 안고 「텍사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 김병수 사범이다.

「텍사스」방이 험하고, 「텍사스」의 인식이 우리에게 험상궂은 것처럼 김 병수 사범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은 수많은 고초를 각오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김 병수 사범은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한국 남아의 기백을 다짐했었고 또한 한국 태권도인의 자부과 긍지를 거듭 새롭히면서 개척자적인 정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같은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기에 이르러 일반의 인식을 깨우쳤음은 물론이요, 일본 「가라테」보다 한국 태권도의 우위성을 과시하는 「고려형」의 시범을 보여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었다.



문상오 사범의 묘기

1969년 부리는 태권도가 동 대학교의 정규 체육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지금은 「애쉬랜드」 단과대학과 「부록크린」고등학교등에서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의 전교생 15,000명은 체육과목중에서 반드시 태권도를 이수해야만 한다.

—뉴욕—

New York주 「롱 아일랜드」시에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여 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김홍섭(金洪燮, 6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육군아파트6동 212호) 사범이 일시 귀국하여 구만 12월 22일 협회를 방문, 얘기를 나누었다.

현재 김사범도장(도장명: Korea Taekwondo School)

김홍섭사범의 묘기



김병수 사범과 도장포스터

미국 「오하이오」 주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도장을 가지고 있는 문상오(文相吾) 사범은 1967년 미국에 건너가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왔다.

「미국 「미쉬간」 주

1970년 10월 「디트로이트」 법률사무소의 초청을 받아 도미한 정호영(鄭好榮) 사범은 71년 9월 1일 도장을 개설하고 「인내(忍耐)」태권도 도장」이라고 명명, 태권도 보급에 나섰다.

「프랑스」

「프랑스」 태권도협회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에 간 이관영(李觀永) 사범은 현재 「파리」시를 중심으로 하여 40km사방으로 교외까지 합쳐 9개 도장을 운영중에 있다. 또한 Marseille 항구 도시의 2개 도장, Montellier대학도시에 1개도장, St. Raphaël에 1개의 합쳐 이 사범이 운영하고 있는 도장은 총 13개에 이른다.

정호영 사범과 포스터



이관영 사범과 포스터

—동 아프리카—

거리상으로나 외교상으로나 우리나라와는 마냥 서먹한 사이이지만 하던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마침내 한국 태권도가 뿌리를 박게 됐다.

한국 태권도가 전 세계를 무대로 즐기치게 진출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십여년이 되었지만 아프리카 대륙만은 유독 미개척지로 지목되어 왔었다.

그러나 1969년 10월 김 남석사범이 「우간다」 정부의 초청을 받고 장도에 오른지 2년여에 「우간다」에는 한국 태권도를 수련한 인구가 3,000여명으로 늘어 났고 「우간다」국민들이 한국 태권도의 우수성에 깊은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태권도」誌 購読 希望者에게 알립

해외로 진출하여 태권도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국위를 신장하는 해외 사범 여러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 동안 본 협회에서 발간하는 「태권도」지를 받아 보셨을 줄도 믿읍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범 여러분들에게 송료까지를 본 협회 부담으로 「태권도」지를 무료로 배부했었습니다만, 신년도 부터는 협회 방침에 따라 구독을 희망하는 분에게만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본 협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태권도 발전에 더욱 큰 기여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구독신청서를 작성 송료를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권도」지 지역별 송료

(2월 1일 개정 요금)

1년분 송료 (4회)

1 지역	720원	2 \$
2 지역	920원	2 \$ 70¢
3 지역	1,520원	4 \$ 30¢
4 지역	2,120원	6 \$

- 1 지역 : China, Hong Kong, Macao, Ryukyu, Japan.
- 2 지역 : Alaska, Burma, Cambodia, Guam, Laos, Malaysia, Vietnam, Philippines, Midway, Singapore, Thailand
- 3 지역 : Near East Asia, Pakistan, India (except the areas included in 1st, 2nd and 4th zone) Canada, Hawaii, U. S. A. proper, Oceania
- 4 지역 : Europe,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West Indias, Middle East Asia (Iran, Iraq, etc.)

김남석 사범



跆拳道人과 他競技人의 体力比較

玄 友 永

한양대학교작업능률과학연구소

本 "태권도"誌는跆拳道의 科学化를 위한 先鋒의 役割을 스스로 担当하는 意味에서 數次에 걸쳐 태권도에 관한 研究物을 掲載한 바 있다. 이번 号에는 "跆拳道와 体力"이라는 命題로써 跆拳道人의 体力現況, 그리고 앞으로 發展의인 意味에서의 태권도는 무엇일, 어떻게 改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 등의 問題를 紙上討論으로 硏어 본다.

1. 태권도인의 体力을 측정할 동기, 방법,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 하신다면……

먼저 跆拳道人의 体力을 測定하는데 여러가지로 도와 주신 大韓跆拳道協會에 감사 드린다.

跆拳道人의 体力을 測定한 것은 태권도인의 体力現況把握과 現在 實施하고 있는 跆拳道의 修練過程(修練內容 및 方法)을 통하여 育成된 体力要素別 發達度를 알고져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測定대상을 태권도 有段者로 選定하고 이를 다시 初技者, 中技者, 高技者로 나누어서 測定하므로써, 跆拳道의 修練期間과 태권도 技能向上에 따른 体力發達의 推移를 알아 보고져 한 것이다. 測定項目에 있어서는 一般의 體格을 測定하는 身長, 坐高, 胸圍, 體重과 体力要素인 筋力, 持久力, 瞬發力, 敏捷性, 柔軟性, 平衡性 등을 檢査하는 握力, 背筋力, 脚力, 肩腕引力, 肩腕押力, 윗몸 일으키기, Step up Test, Bur pee Test, 肺活量, Shuttle Run, 60m 달리기, 体前屈, 体後屈, 立幅跳,

Stick Test, 重心移動反應速度 등 총 20개 項目을 選定하고 測定을 하였다. 그 結果, 위의 20개 項目이 다 같이 그의 體格 및 体力面에 있어서 初技者에서 中技者, 中技者에서 高技者로 가면서 全體的으로 向上되고 있음을 發見했고, 그의 發達度에 있어서는 初技者에서 中技者로 가는 過程이 中技者에서 高技者로 가는 過程보다 顯著하게 發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體格 및 体力要素別로 보면, 體格에 있어서 특히 身長의 發達이 顯著한데 비해 體重의 發達은 遲遲하였고, 体力面에 있어서는 筋力에서와 握力과 肩腕押力, 그리고 敏捷性에서의 重心移動 反應速度, 瞬發力에서의 立幅跳와 平衡力에서의 Stick Test 등의 發達이 顯著함을 볼 수 있었다.

以上 위에서 보는 바 現在 實施하고 있는 跆拳道의 修練過程을 통해서 見어지는 것은 体力面에서 볼 때 幅育보다는 長育이 發達되었고, 体力面에서는 敏捷性, 平衡性 등, 주로 神經的인 影響에 크게 依存되는 素아가 發達되고 있음을 알았다.



2. 태권도인과 타경기인의 体力을 比較 評價한다면……

体力測定에서 他集團의 測定結果와 橫的인 比較를 한다는 것은 測定項目, 測定方法등의 問題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태권도인과 같은 項目과 方法으로 体力을 測定한 A 大校 一般學生 및 體育大學 高級學

年生의 体力測定結果值을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다음의 表는 태권도인(高技者), 體育大學生(高級學年), 一般大學生(初級學年)의 体力을 比較한 것이며, 表-1 体力比較表에 依하여 身體形態 및 身體機能의 体力要素別 比較圖 1~8을 附한다.

태권도인 : 체육대학생 : 一般大學生의 体力比較表

(表 - 1)

領域	測定項目	태권도(高技者)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	
		35 名		30 名		50 名	
		平均	標準偏差	平均	標準偏差	平均	標準偏差
신체 형태	키	167.1 (cm)	6.92	167.8	6.11	166.5	6.21
	앉은 키	89.2 (cm)	4.79	91.1	3.57	88.9	4.12
	가슴 둘레	88.2 (cm)	5.02	93.6+	6.65	87.8	5.79
	몸무게	59.9 (kg)	5.25	61.3+	5.76	58.1	6.28
신	쥐는 힘 (握力)	좌 47.7 (kg)	4.33	48.6	4.87	43.7	4.98
		우 48.4 (kg)	4.22	53.1	6.48	44.8	4.23
	배근력(背筋力)	137.2 (kg)	15.56	148.3	14.89	134.2	11.2
	당기는 힘 (肩腕引力)	36.9 (kg)	4.18	37.0	8.03	33.4	4.01
체	미는 힘 (肩腕押力)	52.5 (kg)	6.17	51.3	8.84	40.1	5.09
	뒷몸이르키기 (sit-up)	82.1(回)	6.24	95.6	7.06	50.2	8.11
	Step up-Test	116.4 (回)	9.86	104.0	9.42	122.4	9.61
	肺活量	3,850 (cc)	391.1	4,500	190.2	3,420	425.1
기	Shuttle-Run	10.1 (秒)	0.94	10.5+	0.56	12.3	1.21
	Burpee-Test	6.8 (回)	0.78	6.5+	0.50	4.6	0.77
	体前屈	20.2 (cm)	4.05	19.1	4.75	14.3	4.52
	体後屈	61.9 (cm)	6.91	53.2	6.63	40.6	6.82
능	(立幅跳) 제자리 넓이 뛰기	242.5 (cm)	15.14	232.2	10.72	210.1	20.15
	Stick Test	3.1 (回)	0.70	3.6	0.31	10.7	5.51
	中心運動 反應速度	음 0.240 (秒)	0.029	0.255	0.039	0.332	0.038
광 0.265 (秒)		0.031	0.301	0.022	0.370	0.039	

* 體育大學生이란 大學高級學年으로써 體育大學教育課程에 依한 All round Training이 되어 있는 者들이며, 特히 이들 中에는 柔道, 力道, 柔道, 농구, 배구의 大學 代表級선수가 包含되어 있다.

* 一般 大學生이란 文理科大學 初級學年生으로써 Random sampling에 依하여 추출 된.

圖-1에 의거 身体形態를 比較하면 体育大学生, 身長 167.8cm, 坐高 91.1cm, 胸圍 93.6cm, 体重 61.3kg, 태권도인, 身長 167.1cm, 坐高 89.2cm, 胸圍 88.2cm, 体重 59.9kg, 一般大学生 身長 166.5cm, 坐高 88.9cm, 胸圍 87.8cm, 体重 58.1kg로 体育大学生이 가장 우수하게 發達되었고, 그 다음이 태권도인이며 가장 發達이 나쁜 것이 一般大学生이다. 여기서 특히 發達의 差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가슴 둘레보여 体育大学生 93.6cm, 태권도인 88.24cm, 一般大学生 87.8cm이며, 가장 적은 差를 보인 것은 身長으로서 体育大学生 167.8cm, 태권도인 167.1cm, 一般大学生 166.5cm이다.

태권도인, 체육대학생, 일반대학생 신체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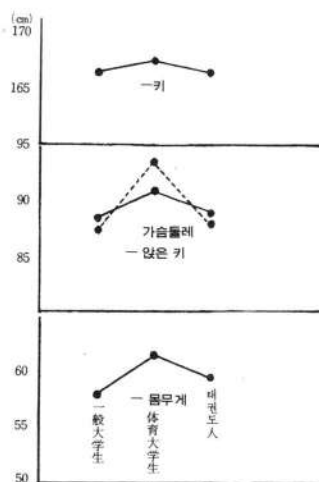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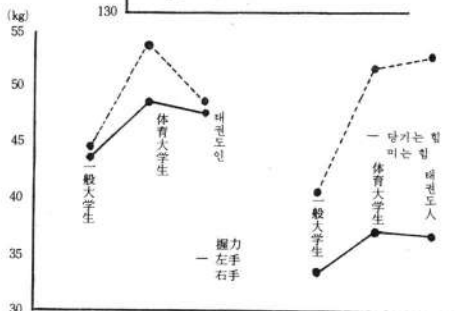


圖 2~3 (諸筋力: 靜的筋力, 筋持久力을 比較한) 에 依한다면, 握力(左, 右), 背筋力, 肩腕引力, 윗몸 일으키기, 種目に 있어서 体育大学生이 握力 左 48.6kg, 右 53.1kg, 背筋力 148.3kg, 肩腕引力 37.0kg, 윗몸 일으키기 95.6회로써 가장 優秀하며, 그 다음이 跆拳道人으로서 握力 左 47.7kg, 右 48.4kg, 背筋力 137.2kg, 肩腕引力 36.9kg, 윗몸 일으키기 82.1회, 이고 가장 發達이 나쁜 一般大学生은 握力 左 43.7kg, 右 44.8kg, 背筋力 134.2kg, 肩腕引力 33.4kg, 윗몸 일으키기 50.2회이다. 그러나 特別하게도 肩腕押力(미는 힘)에 있어서는 跆拳道人 52.5kg, 体育大学生 51.3kg, 一般大学生 40.1kg로 跆拳道人이 가장 優秀하고 그 다음이 体育大学生, 一般大学生의 順으로 發達되어 있음은 特記할 만한하다.

태권도인, 체육대학생, 일반대학생, 筋力(靜的筋力) 比較 圖-2



태권도인, 体育大学生, 一般大学生 筋力(筋持久力) 比較 圖-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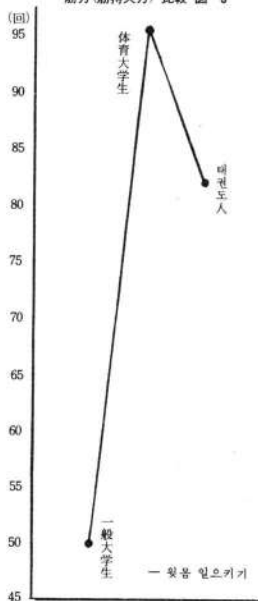




圖-4 全身持久力の 間接測定種目인 Step up Test, 肺活量 測定結果의 比較를 보면 가장 發達된 것이 體育大學生으로 Step up Test 104.0回, 肺活量 4,500 cc이고 그 다음이 태권도인의 Step up Test 116.4回, 肺活量 3,850cc이며 가장 發達이 나쁜 것이 一般大學生 Step up Test 122.4回, 肺活量 3,420cc이다.

태권도人,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 持久力 (Step up Test, 肺活量) 比較 圖-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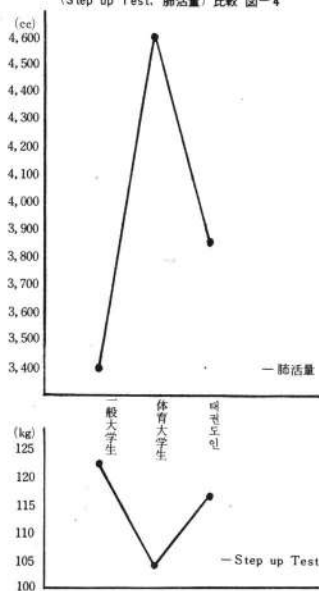


圖-5 瞬發力檢査種目인 立幅跳의 比較에 依하면 가장 發達된 것이 跆拳道人으로 242.5cm이고, 그 다음이 體育大學生으로 232.2cm이며, 그리고 가장 發達이 나쁜 것이 一般大學生 210.1cm으로 跆拳道人이 瞬發力 檢査에서 가장 좋은 成績을 보이고 있다.

태권도人,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 瞬發力 比較 圖-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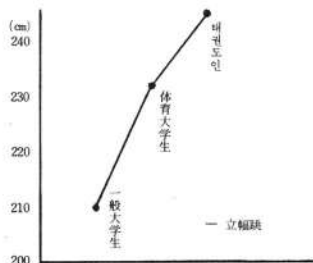


圖-6 敏捷性 檢査種目인 重心移動反應 速度, Burpee Test, Shuttle-Run의 比較한 것을 보면, 跆拳道人이 重心移動反應速度 音 0.24초, 光 0.265초, Shuttle Run 10.1초, Burpee Test 6.8회로 가장 優秀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體育大學生으로, 重心移動反應速度 音 0.255초, 光 0.301초, Shuttle Run 10.5초, Burpee Test 6.5회이고, 가장 發達이 나쁜 一般大學生은 重心移動反應速度 音 0.332초, 光 0.370초, Shuttle Run 12.3초, Burpee Test 4.6회이다. 따라서 跆拳道人은 敏捷性 檢査種目인 重心移動反應速度, Shuttle Run, Burpee Test의 全種目에서 가장 優秀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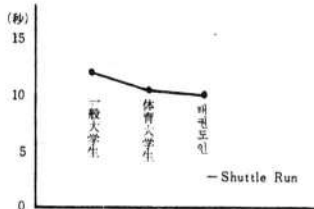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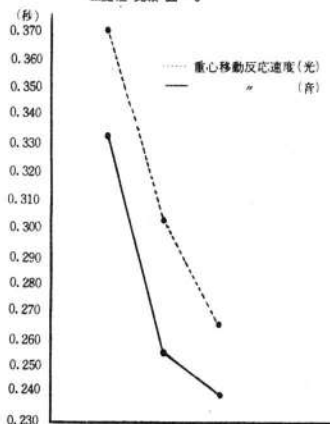
태권도인,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
敏捷性 比較 圖-6

圖-7 柔軟性 測定種目인 體前屈, 體後屈의 比較에 依하면, 跆拳道人이 體前屈 20.2cm 體後屈 61.9cm로 가장 優秀하며, 그다음이 體育大學生의 體前屈 19.1cm 體後屈 53.2cm이고, 그다음이 一般大學生으로 體前屈 14.3cm 體後屈 40.6cm로 가장 나쁘다. 따라서 跆拳道人은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에 比해 體前屈, 體後屈의 測定에서 優秀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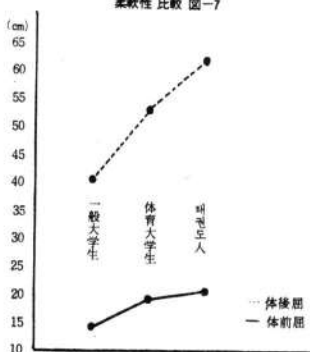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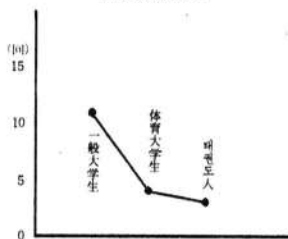
태권도인,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
柔軟性 比較 圖-7

圖-8 平衡性 檢査種目인 Stick Test의 測定結果의 比較에 依하면 跆拳道人의 罰則回數 3.1回, 體育大學生 3.6回, 一般大學生 10.7回로 跆拳道人이 가장 發達되어 있으며 그다음이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의 順으로 平衡性이 發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태권도인,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
平衡性 比較 圖-8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身體形態面에서 體育大學生이 가장 優秀하고 그다음이 跆拳道人, 一般大學生의 順인데, 가장 發達이 좋았던 體育大學生에 比해 跆拳道人, 一般大學生은 身長, 坐高보다는 胸圍, 體重에서 많은 差를 보이고 있음은 跆拳道가 長育에 比하여 幅育에 좋은 影響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思料되다. (表-1, 圖-1 參照)

한편, 身體機能面에서 諸筋力에 있어서 握力, 肩腕 引力, 脛骨 일으키기 등의 発達에 있어서 體育大學生, 跆拳道人, 一般大學生의 順으로 發達이 되고 있음은 跆拳道가 筋力의 發達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他競技種目에 비해 많은 影響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肩腕 押力에 있어서 跆拳道人이 가장 優秀하였음을 보인 것은 태권도의 基本動作, 型 등에서 내지르는 動作의 頻도가 많은 것과, 特別히 주먹 굳히기 등에서 過負荷狀態를 줄 수 있어 현저한 發達이 있었다고 思料된다. (表-1, 圖2-3 參照)

持久力에 있어서는 體育大學生이 跆拳道人 및 一般大學生에 비해 靚동한 發達이 있었는데 이것은 跆拳道가 持久力 發達에 微微한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많은 研究가 있어야 될 줄 믿는다. 그것은 持久力은 적어도 全身의 活動을 계속적으로 5分以上 계속 할 때 키워지는 것으로 現行 태권도 修練過程에서 5分間 계속되는 訓練의 有無가 研究되어야 하리라 생각 된다. (表-1, 圖-4, 跆拳道경기規則)

瞬發力發達에 있어서는 跆拳道人이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에 비해 優秀하였다. 생각컨대, 筋力에 있어서 體育大學生에 비해 劣勢한 跆拳道人이 순발력에서 우세하였음은 跆拳道人의 Speed, 敏捷性등의 主要要素인 神經 소용 能力이 태권도 수련에서 많이 發達되고 있음은 間接적으로 立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表1, 圖-5 參照)

敏捷性에 있어서 跆拳道人이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에 비해 優秀하다. 더욱이 重心移動反應速度, Shatttle Run, Burpee Test 등 全部定種目에서 優秀하다. 이것은 태권도가 敏捷性 發達에 크게 도움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敏捷性은 태권도의 主要한 體力要素라 하겠다. (表1, 圖-6 參照)

柔軟性에 있어서 體前屈, 體後屈이 다 같이 태권도人이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 보다 發達되어 있다. 이것은 태권도 수련과정에서 발 뜰러차기, 上段차기, 열차기 등의 日常訓練의 效果라고 생각되며, 柔軟性이 태권도에서 가장 많이 要求된다고 思料된다. (表-1 圖-7, 參照).

平衡性에 있어서 跆拳道人이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에 비해 보다 發達되어 있다. 跆拳道人과 體育大學生의 罰則差는 0.5회에 不過하나, 體育大學生과 一般大學生과의 差는 7.1회로써 極甚한 差를 본다. 따라서, 跆拳道人과 一般大學生과의 差는 7.6회로써 더욱 더 하다. 여기서 跆拳道가 平衡力을 發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며, 한편 跆拳道는 平衡力을 많이 要求하는 運動이라고 思料된다. (表-1, 圖-8 參照)

결론적으로 보아, 跆拳道人, 體育大學生, 一般大學生의 體力 比較에서,

태권도는 身體形態, 身體機能의 全体面에서 보아 一般大學生에 비해 發達되어 있음을 發見하였고, 體育大學生에 비하면, 筋力中에서 미는 힘, 敏捷性에서 Shatttle Run, Burpee Test, 重心移動反應速度의 全種目, 그리고 瞬發力에서의 立幅跳, 柔軟性에서의 體別屈, 體後屈의 全種目과, 平衡性에서의 Stick Test 등에서 優秀하였으며, 筋力에서 쥐는 힘, 배근력, 당기는 힘, 脛骨 일으키기, 그리고 持久力에서의 Step up Test, 肺活量, 등에 劣勢하고 있음을 發見했다.

위를 미루어 볼 때, 태권도는 一般大學生과의 比較에서 보는 바, 그 운동 效果가 全體의 力要素에 골고루 미치어 發達에 도움은 주고 있으나, 體育大學生과의 比較를 보면, 主로 敏捷性, 瞬發力, 柔軟性, 平衡性에 많은 效果가 있는데, 反하여 筋力과 持久力에서는 많은 效果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1971年度 跆拳道 優秀選手

고등부 「푸라이」급



이 환주 : (동산고, 18세)

우승경력 : 전국체전 고등부
중·고·대 개인전
우수선수 선발대회

중 등부 「푸라이」급



유 동훈 (동산중, 17세)

우승경력 : 중·고·대 단체전
신인선수권대회

중 등부 「페더」급

박 승훈 (동산중, 16세)

우승경력 : 중·고·대 단체전
전국체전 중등부
중·고·대 개인전중등부



중 등부 「플터」급

장 석희 (동산중, 16세)

우승경력 : 중·고·대 단체전
중·고·대 개인전



대학교기 「헤비」급

서 동현 (우석대, 24세)

우승경력 : 중·고·대 개인전대학교기
전국체전 일반고기
우수선수 선발대회



중 등부 「라이트」급

박 영인 (동산중, 16세)

우승경력 : 중·고·대 단체전
중·고·대 개인전



—優秀選手 選拔評—

한편을 마감할 때 마다 가장 크게 마음에 남는 승계가 바로 이 우수선수 선발이다. 각종대회를 통해 무패의 기록을 세운 선수들을 규정에 따라 정하면 그만일 것이나, 잔혹 그렇지가 못한 때서 이 심사는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특히나 무패의 기록을 수립한 선수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심사에 입하는 임원들의 고충은 큰 것이 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으나 무패의 기록을 자랑하는 선수 가운데, 뜻하지 않은 부상사로 최종결정에서 부득불 이름이 빠져야하는 애석한 일도 흔해는 있었다.

태권도는 이제 국가(國技)로서 또는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스포츠으로써, 그리고 온 세계의 숙원인 승풍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비양의 경기로서, 전 태권도인이 알아야 할 사명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되겠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참된 태권도인의 참모습을 구현하는데 더욱 힘과 뜻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고 등 부 「미들」급

박 만 식 (삼례중학교, 21세)

우승경력 : 중·고·대 개인전고등부
전국체전



고 등 부 「미들」급

안 장 식 (광성고, 19세)

우승경력 : 신인선수권대회
중·고·대 단체전



대학교기 「웰터」급

김 정 태 (동아대, 24세)

우승경력 : 중·고·대 단체전
중·고·대 개인전



고 등 부 「페더」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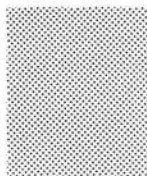
한 광 열 (전주농고, 18세)

우승경력 : 신인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대학교기 「반탑」급

김 수 영 (동아대, 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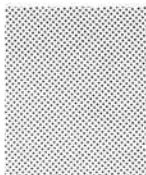
우승경력 : 중·고·대 단체전
중·고·대 개인전



고 등 부 「린」급

심 형 기 (소사농고, 18세)

우승경력 : 신인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대학교기 「페더」급

차 동 철 (동아대, 23세)

우승경력 : 중·고·대 단체전
중·고·대 개인전



여 자 부

남궁 명 석

우승경력 : 여자부 개인선수권대회
여자부 우수선수선발대회

알 림

심사신청서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적과 원주소 성명은 한자(漢字)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증명판 사진 3매를 첨부할 것.
3. 소속 관, 중앙본관장의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4. 2단 이상 응시자는 협회 발행 단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이상 4항목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 심사원서를 접수치 않음.

태권도의 기초적 「트레이닝」

김 순 재

1. 서 언

태권도는 지르기·치기·차기 등의 동작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기본 운동이며, 주로 신체 접촉에 따른 대인적(對人的) 투기(鬪技)로서 인간 본능으로서의 자연 발생적인 활동 양식을 따라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태권도는 여러가지 기초 운동이 결합되므로써 종합적인 작용을 하며 여러 근육 내지 관절, 내장 기관 등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더구나 도수(徒手)의 무기(武技)로서 발달한 태권도는 운동량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독특한 긴장을 요하기 때문에 호신술(護身術)로서 뿐만이 아니라 심신단련의 수단으로서도 우수한 효과가 인정되어 있다.

또한 지르기, 치기, 차기 등의 기(技)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의 일격(一擊), 일축(一蹴)은 그 위력이 치명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수련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대를 가상해서 혼자서 공격과 방어를 익히는 형(型),

두번째, 단련구 등을 사용해서 손, 발등의 공격 및 방어 부위를 단련하는 방법.

셋째, 형의 실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경기나 대련에 임할 때 여러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수련한 특기를 살려서 상대방을 공격 방어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전신운동(全身運動)으로서 다른 운동에 비해 순발적(瞬發的)인 신근(伸筋)의 긴장이 많으므로 수련할 때에는 운동전후에 준비운동과 정리운동(整理運動)을 충분히 해야 한다.

또한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같은 기초체력(基礎體力)육성과 전문체력(專門體力) 육성을 위한 보강운동(補強運動)을 행함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태권도에 알맞은 준비운동, 보

강운동 및 정리운동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기초적 운동 종목 만을 여기에 다루어 보기로 한다.

2. 준비운동

이 준비 운동은 본 운동을 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고 가벼운 운동으로써 몸 전체에 흥분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행함이 좋을 것이다.

이는 운동생리·해부·위생·역학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신체기능이나 운동능력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에 대해 준비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도 강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림(1)

- (1) 양팔 휘둘리기와 팔굽, 손목, 손가락 관절의 굴신(屈伸) 요령 : ① 양팔을 앞으로 크게 돌린다.
② 팔굽, 손목, 손가락의 관절 등을 충분히 굴신한다.

(2) 다리 흔들어 올리기

요령 : 한쪽 다리의 무릎을 조금 구부리고 다른쪽 다리를 앞 뒤 좌우로 올리기 및 돌리기를 한다. 흔들어 올릴 때는 되도록 높게 들리는 경우는 대퇴(股) 관절을 축으로 해서 될 수 있는 한 크게 원을 그린다.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고 다리를 교대로 해서 행한다.



그림 (2)

(3) 전후 좌우에 주먹 또는 발꿈치로 지르기

요령 : 앞을 지를 때는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선 자세에서 왼쪽 다리를 일보 앞으로 내디딜과 동시에 몸을 돌고 허리를 넣고 오른 발을 앞으로 지르고 주먹을 띠(띠대)보다 조금 높은 곳을 (즉 명치) 직선으로 지른다.

왼쪽은 여기에 준한다.

뒤쪽을 지를 경우는 발꿈치를 구부려서 발꿈치의 끝과 같은 쪽의 다리를 일보 잡아 당겨서 지른다.

이상의 동작은 어느 것이든지 천천히 큰 동작으로 연습해서 행한다.

효과 : 태권도의 기본적인 동작에 필요한 근육, 신경 등에 준비를 갖도록 한다.

꼭 여러 방향으로 지를 경우, 허리 돌기, 체중의 이동, 발의 협동동작(協動作), 양 팔의 협동동작, 골근과 신근의 협동 등의 예비 동작을 하는 것에 의하여 그 부위의 근육 신경계에 준비를 갖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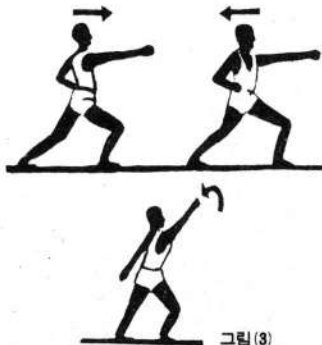


그림 (3)

3. 보강운동

경기에 있어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만으로서는 결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뛰기 앞차기를 할 경우 하지(下肢)를 끌어 당겨 올리기 위한 복근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며 기초적인 뛰기에 필요한 여러 근육의 증강도 필요하다.

시기자(試技者)의 속도(speed)를 올리기 위한 자력(脚力)이나, 민첩한 동작을 행할 수 있는 근력 및 유연성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종합하여 조화로운 이음으로서 비로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1) 단련봉에서 지르기, 치기, 차기

요령 : 단련봉의 높이는 1~2m 한다. 봉폭이 약 10cm 되는 평면을 직으로 감아서 거치른 새끼를 몇번이고 단단하게 같은 곳을 지르거나 치거나 차기 등을 시험해 본다. 특히 할 경우에는 뛰어서 차고 몸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연습한다.

또한 모래주머니(작은 미대에 넣은 것)를 단련봉에 매어서 위와 똑같은 동작을 시험해 본다.

효과 : 손·발 등의 공격 부위를 단련한다.

(2) 윗몸·평행봉 운동

요령 : 간단한 운동, 턱거리, 거꾸로 오르기 등, 1주에 3회정도 계속해서 행한다. 평행봉에서 양손을 잡고 몸을 받쳐서 흔들거나 앞 팔로서 앞뒤로 이동한다.

효과 : 약력, 복근, 매달리기의 능력(힘수력)을 기르므로 주먹의 타력(打力)을 강화한다.

앞 팔 어깨의 저항력을 기른다.

(3) 한 발로 연속 뛰기

요령 : 한쪽 발로 연속해서 30~50m 정도 8방으로 뛰기를 한다.

효과 : 각력(脚力), 도약력(蹴躍力) 「스데미나」(stamina)를 기른다.

(4) 지르기, 치기, 차기 등의 내구연습(耐久練習)

요령 : 상대발과 약속으로 가슴이나 배를 적당히 지르게 하거나 팔이나 다리를 장갑로써 치게 한다. 지르거나 치거나 하는 순간 그 부위의 근육을 최대한으로 경직(硬直)하게 한다 그리고 호흡도 그 순간만 정지 한다. 익숙해 질에 따라 차차 강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 부위에 완충물(緩衝物)을 대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

효과 : 충격에 익숙해 지게 하고 그 부위에 내압성(耐壓性)을 준다. 충격과 동시에 근육 경직(硬直)하게 하여 반사운동을 연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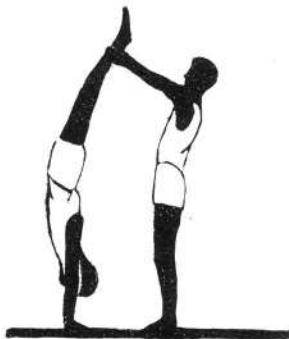
(5) 도립하며 팔 굽혀펴기

요령 : 거꾸로 서서 보조자에게 다리를 잡게하고 팔을 천천히 굽혀 펴기를 한다.

이것이 불가능 할 때 까지 한다.

효과 : 팔의 신근, 손목, 손가락, 복근 등을 보강한다.

기타의 보강운동으로 무게를 이용해서 근력을 육성하는 「웨이트 트레이닝」(Weight Training), 전신적인 몸 만들기를 위한 즉 all Round 한 체력육성을 위한 「서어킷트·트레이닝」(Circuit Training), 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인터벌·트레이닝」(Interval Training) 등이 있지만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약하기로 한다.



그림(5)

4. 정리운동

어느 「스포츠」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그 「스포츠」의 독특한 체형으로 되어 간다. 즉 하나의 기형적인 체형이 된다.

이러한 기형적인 체형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결여한 뿐만 아니라 내부의 기관에도 어떠한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이 나아가서는 개질(個疾)이나 개벽(個癖)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스포츠」는 이기거나 좋은 기록을 얻는 것만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심신을 보다 좋은 상태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스포츠」에 따라 편중된 근육 관절 내지는 기관에 휴양을 주고 또한 쓰여지지 않은 근육이나 기관에 어느 정도의 보상적인 「트레이닝」(Training)으로 신체 각부의 편파적인 발달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체의 조화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좋은 건강체를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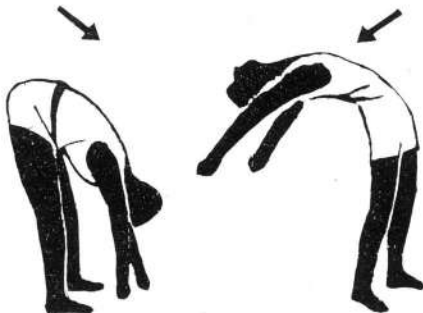
과거에는 주운동(主運動)편중(偏重)의 경향이 있어 근육이나 기관을 점진적으로 휴양의 상태로 이행시키지 않거나 편중된 자세의 교정 「트레이닝」(Training)까지 게을리 하며 신체의 원만한 발달을 바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근육이나 기관에 대하여 운동생리학적으로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어 결국 이것들의 노화현상을 촉진시키고 「스포츠」의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함이 불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태권도에서도 정리 운동을 해줌으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그 기형적인 현상을 바로 잡는데 의의가 있다고도 본다.

(1) 윗몸 앞 뒤로 굽히기

요령 : 다리를 옆으로 넓게 벌려 몸을 천천히 깊게 앞 뒤로 굽힌다.

효과 : 등이나 배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 준다.



그림(1)

(2) 팔 다리 굽신

요령 :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무릎을 굽히고 동시에 팔을 굽혀 어깨에 댄다. 무릎을 펴는 것과 동시에 팔을 위로 뻗는다. 다리를 오무림과 동시 원자세로 한다. 좌우 교대로 한다.

효과 : 신근과 굴근을 조정한다. 태권도에서는 특히 신근이 사용되기 때문에 신근의 긴장을 취하고 굴근의 운동을 보충한다.



그림 (2)

(3) 달리기

요령: 몸의 힘을 빼고 팔을 느리고 천천히 달린다.

효과: 전신의 근육이나 건(腱)의 해긴(解緊)과 조정을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태권도는 다른 경기처럼 과학적인 「트레이닝(Training)」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발전을 보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태권도 「스포츠즈」라기 보다는 하나의 도적(道的)인 존재로 보는 관념이 강하고 동양적 관념이 아직도 살아 있는데 기인 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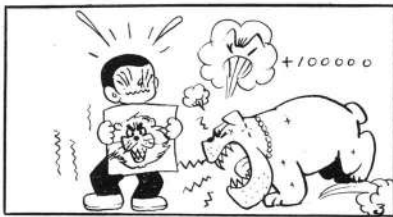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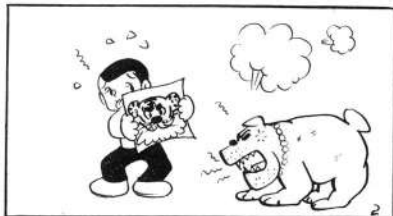
태권도가 현재는 국제무대에서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앞으로 체력이 약한 동양인과 체력이 강한 서구인과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Training)」의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지금까지 너무나 기술에만 치우친 결과 체력적인 면에는 등한시한 감이 없지 않다.

경기의 기록은 기술에다 체력과 정신력이 응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만 좋아도 불충분하고 체력만이 좋아도 불충분하므로 이 양자가 높은 차원을 이룰 때에 차원이 높은 기록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한국의 태권도가 상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이 높은 기초체력 및 전문체력 육성에 「스포츠즈」 과학을 총동원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연하러 곰돌이, 최현희



해외 태권도 사범들에게

— 국 제 부 —

壬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면서 태권도 보급에 전력하고 있는 해외 태권도 사범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기회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면으로 태권도의 일상불란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건의해 준 여러분들의 충정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자 하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해외 과전 태권도 사범들의 현황을 알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공문을 띄웠었으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협회에 건의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의 검토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사항은 분명 태권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래 전 부터 해결되어 왔어야 할 일들이었지만 지금까지 누락되어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힘든 덩어리가 되었습니니다.

형과 기술상의 용어가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교본이 없음으로서 그 시행이 혼선을 빚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있게 저술된 완전한 교본의 발간 등은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책임 져야 할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굳은 사명감으로 동서 하나 하나 이 일을 해결하고 완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협회는 곧 영문으로 된 태권도 소개「팜플렛」을 발간, 해외 태권도인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아울러 태권도 교본도 준비중에 있으며 곧 발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본에 의해 국내·외에서 단일한 방법으로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영문판, 나아가서는 주요 외국어로 차례 차례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좋은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일을 그릇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으며 지금이라도 하나 하나 차근 차근 해나아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명이 국내 태권도인이거나, 또는 협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해외에서 태권도 보급에 헌신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조국의 얼을 이역에 심는데 전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깨에도 똑 같은 사명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범들로부터 오는 시인의 주소를 보면 오직 Taekwondo 라고 고집한 자랑스런 사범이 있는 가 하면 Karate나 Korean Karate나, 또는 팔호속에 넣어 Korean Taekwondo 라고 궁색한 표현을 해 놓은 사범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Korean Taekwondo 라는 명칭으로 밀고 나아가 일 본「가라테」와는 그 원형이 틀린 한국 고유의 무술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세워 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 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년내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태권도 중앙 도장을 완공하게 되고 그래서 계획적이고 획일적인 태권도 육성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면 모든 일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아래서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해를 위한 행동의 지침(指針)을 정해 《도약과 성취》를 위한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외의 사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개의 태권도—조국이 낳은 자랑스런 태권도가 결코 여러 개 일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의 태권도」를 구현하는 그 길이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성취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공통된 우리의 이 사명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해에 여러분들의 하는 일마다 영광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태권도 기술심

TAE KWON DO ILLUSTRATED



담담 · 이 중 우

.....
형은 태권도에 있어 종합적인 체력 육성법과 겨루기의 바탕을 이루는 것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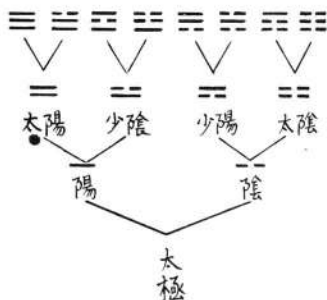
.....
지난 가을호에 소개된 바와 같이 형(型)의 진행선과 기본자세를 개량하기
.....
로 되어 있다.

.....
그러나 태권도협회 '72년도 총회에서 집행부 총개편에 따라 형과 기타 기술
.....
에 대한 문제를 완전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 겨울호를 내놓게 되었다.

.....
이러한 관계로 기술이론과 동작에 대한 개혁은 앞으로 기술심의회에서 재
.....
검토한 후 심기로 되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역 표

天澤火雷風水山地
 乾兌離震巽坎艮坤



팔괘 일장의大意

인간은 무엇인가 이루어 놓고자 하는데 하나의 뜻을 두며, 그 뜻을 놓고 값지게 하고자 하는데 그 보람을 느낀다고 하겠다.

뜻이란 철학과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본연의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뜻이 없는 곳에는 가치가 있을 수 없으며, 가치가 없으면 또한 사상과 진리가 있을 수 없으니, 어찌 인간이 참된 뜻을 좇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태권도는 인간의 육체를 끌고루 발달시키는 종합 운동이요, 아름다움(美)으로 승화된 예술인 것이다.

즉 예술은 사상과 진리로 직결되고 태권도는 형(본)을 만들어 내는데 값지고 높은 예술의 결지와 이어진다.

팔괘 일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맹목과 허공을 그저 뱀도는 것이 아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그려진 팔괘가 바로 역(易)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손꼽을 수가 있겠다.

역이란 고대 중국의 철학사상으로서 세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변역(變易), 불역(不易), 간역(簡易)이다.

이것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우주(宇宙)간의 현상과 사회의 모든 일은 한없이 변화함으로 변역의 이치를 이루었으며 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정 불변의 정연한 이치가 있으므로 불변의 이(理)를 가졌으며, 동시에 이 법은 간이명백(簡易明白)하므로 간단하고 쉽다는 뜻을 겸하여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역이란 위로는 천문과 천체의 진리를 알게 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펴서 우주와 인생의 모든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역은 천지에 기준한다. 그러므로 천지의 진리에 잘 부합되어 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인류의 관계를 만물 생성의 이치와 동일원리에 의하여 설명한 것이다. 즉 8괘를 가족적 위치에서 해석하는 동시에 음양二원의 원리를 부부·부자·군신 등의 관계로 확장하여 사회 구성의 원리로 하였다. 또 <천지가 있는 뒤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뒤에 남녀가 있으며, 남녀가 있는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뒤에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는 뒤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는 뒤에 상하가 있으며, 상하가 있는 뒤에 예의를 실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적 위치의 윤리로는 <여자는 지위를 안에서 바르게 하고, 남자는 지위를 밖에서 바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남녀가 각자 바른 지위에 있는 것은 천지의 큰 뜻이다.

부도를 엄군(嚴君)으로 받들고 그 아래에 아비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형은 형. 아우는 아우. 남편은 남편 아내로써 각기 자기의 도(道)를 다하여야 가도(家道)가 바르게 되며 가도가 바로 잡혀야 나라가 편안하여 진다.

이것은 모두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지켜, 분한(分限)을 넘지 않으므로 군신(君臣)간에는 의(義)가 있고, 부자간에는 친(親)이 있으며, 부부간에는 별(別)이 있고, 장유간에는 서(序)가 있는데 이것들을 요약하면 인의(仁義) 두자로 귀결된다.

인(인도)의 극치로서 천도의 음양과 지도의 장유와 같이 실로 천, 지, 인(天, 地, 人) 三재의 큰 도인 것이다.

형을 수련 하면서 맹목적인 수련 보다도 팔괘 형이 지닌 위에 설명한 팔괘의 철학적인 뜻을 잘 새겨 인륜도덕(人倫道德)에 힘입어 없이, 도(道)를 닦는 길의 첫발을 여기에 두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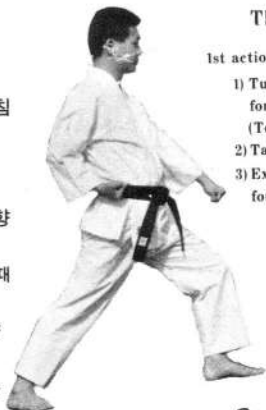
동작(1)

- (가) 왼발을 준비 자세에서 반걸음 왼쪽으로 나가며 ("다1"방향) 몸도 왼쪽으로 90° 돌린다.
- (나) 왼발 앞굽히기
- (다) 왼 주먹 하체막기

The starting action :

1st action :

- 1) Turning left, move your left foot forward about a half step. (Toward L-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left forearm.



1무표준 시간 30초 (동작 하나 하나 끊어서 침착하게 하여야함)

연무동작수 20개 동작

※ 준비와 끝 맺음은 동작수에서 뺀다.

- (4) 동작을 이어 나가는데 쉽게 일리기 위하여 방향을 "중앙" "가" "나" "다" "라"로 정한다.

"중앙"~중앙은 준비자세로 서있을 때와 끝날때의 위치를 말한다.

"가"~"가"는 준비자세에서 곧장 바라보는 방향

"나"~"나"는 가의 반대(뒤)로 진행되는 방향

"다"~"다"는 준비 자세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방향

"라"~"라"는 준비 자세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

동작(2)

- (가) 오른발 한걸음 앞으로 나가며 ("다1"방향)
- (나) 오른발 앞굽히기
- (다) 오른 주먹 중체 막기



2nd action :

- 1) Move your right foot forward about one step(Toward L-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front middle block with the right arm.

Ready

준비

- (1) 호흡을 아-
- 음
- (2) 그림
- (3) 눈
- (4)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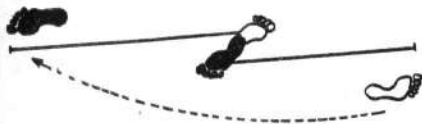
동작(3)

- (가) 몸을 오른쪽으로 180° 회전하며 왼발 축으로 오른쪽발이 "라1" 방향으로 옮겨
- (나) 오른쪽발 앞굽하기
- (다) 오른쪽 주먹 하체 막기



3rd action:

- 1) Turning the body backwards rotate your right foot on the line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the right forearm.



동작(4)

- (가) 왼
- (나) 왼
- (다) 왼



동작(5)

- (가) 몸을 왼쪽으로 90° 돌려 오른쪽발 축으로 왼발이 "가" 방향으로 옮겨
- (나) 왼쪽발 앞굽하기
- (다) 왼 주먹 하체 막기

4th action:

- 1) Move your left foot forward about one step toward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front middle block with left arm.



동작(6)

- (가) 오른 발이 한걸음 나가 ("가"방향)
- (나) 왼발 뒷굽히기
- (다) 오른 주먹 중체 막기



6th action:

- 1) Take one step forward with your right foot toward the F line.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side block with right arm.

동작(7)

- (가) 왼발이 한걸음 나가 ("가"방향)
- (나) 오른발 뒷굽히기
- (다) 왼 주먹 중체 막기

7th action:

- 1) Take one step forward with your left foot toward the F line.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side block with left arm.



동작(8)

- (가)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가"방향)
- (나) 오른발 앞 굽히기
- (다) 오른 주먹 중체 공격 (기합)

8th action:

- 1) Take one step forward, your right foot to the F line.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right fist. (Y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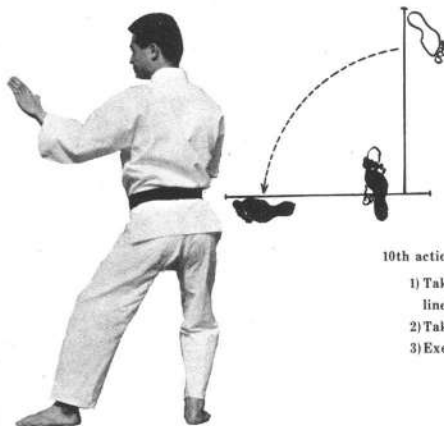


동작(9)

- (가) 몸을 왼쪽으로 180° 돌리며 오른발 축으로 왼발이 "라 2"방향으로 옮겨
- (나) 오른발 뒷굽하기
- (다) 왼손 장칼 막기 (오른손 보조)

9th action:

- 1) Turning the body backwards rotate your left foot on the line R-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double left knife hand block.



동작(10)

- (가) 오른발 한걸음 나가("라 2"방향)
- (나) 왼발 뒷굽하기
- (다) 오른 주먹 중체 막기

10th action:

- 1) Take one step forward, the right foot to the line R-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side block with right forearm.



동작(11)

- (가) 몸을 오른쪽으로 180° 돌리며 왼발 축으로 오른발이 "다 2"방향으로 옮겨
- (나) 왼발 뒷굽하기
- (다) 오른 장칼 중체 막기

11th action:

- 1) Turning the body backwards rotate the right foot on the line L-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right knife hand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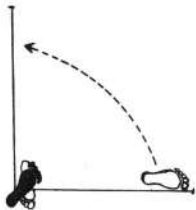


동작(12)

- (가) 왼발이 한걸음 나가 ("다2"방향)
- (나) 오른발 뒷굽히기
- (다) 왼주먹 중체막기

12th action:

- 1) Take one step forward with your left foot to the line L-2.
- 2) Take a back stance.
- 3) Execute a middle side block with left forearm.



동작(13)

- (가) 몸을 왼쪽으로 90°돌며 오른발 축으로 왼발이 "나"방향으로 옮겨
- (나) 왼발 앞굽히기
- (다) 왼 주먹 하체막기

13th action:

- 1) Turning to left, move your left foot following the B line.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left forearm.

동작(14)

- (가)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나"방향)
- (나) 오른발 앞굽히기
- (다) 오른 장칼 목치기

14th action:

- 1) Move your right foot forward about one step toward the B line.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right knife hand strike to the neck.





동작(15)

- (가) 왼 발이 한걸음 나가 ("나"방향)
- (나) 왼 발 앞굽히기
- (다) 왼 장칼 목치기

15th action:

- 1) Move your left foot forward about one step toward the B line.
- 2) Take a forward stance.
- 3) Assume the left knife hand strike to the n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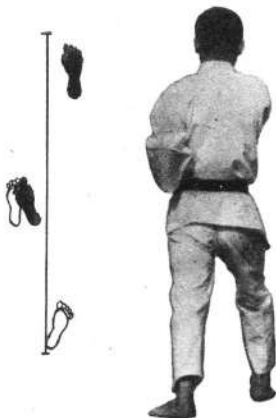


동작(16)

- (가) 오른발 한걸음 나가 ("나"방향)
- (나) 오른발 앞굽히기
- (다) 오른 주먹 중체 지르기~(기합)

16th action:

- 1) Move your right foot forward about one step toward the B line.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middle punch with right fist.



동작(17)

- (가) 몸을 왼쪽으로 270°돌며 오른발 축으로 왼발이 이 "다1"방향으로 옮겨
- (나) 왼발 앞굽히기
- (다) 왼 주먹 하체막기

17th action:

- 1) Turning to left about 270 degrees, move your left foot forward toward L-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ow block with a left forearm.

동작(18)

- (가) 오른발이 한걸음 나가 ("다 1"방향)
- (나) 오른발 앞굽히기
- (다) 오른 주먹 중체 막기

18th action:

- 1) Move your right foot forward toward L-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right middle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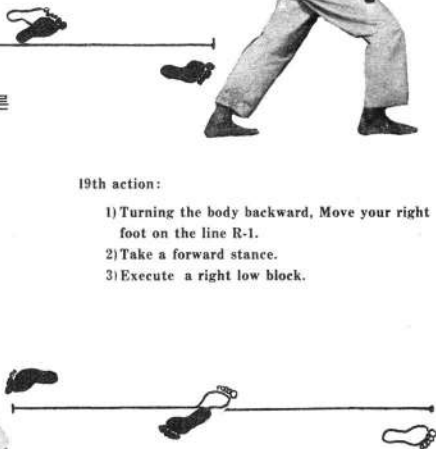


동작(19)

- (가) 몸을 오른쪽으로 180° 돌며 왼발 축으로 오른 발이"라 1"방향으로 옮겨
- (나) 오른발 앞굽히기
- (다) 오른 주먹 하체막기

19th action:

- 1) Turning the body backward, Move your right foot on the line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right low block.



끝맺음

왼발을 끌어서 처음 준비 자세로 옮겨놓고 몸도 준비자세와 같이 한다.

Back to the starting action.

동작(20)

- (가) 왼발이 한걸음 나가 ("라 1"방향)
- (나) 왼발 앞굽히기
- (다) 왼 주먹 중체 막기

20th action:

- 1) Move the left foot forward one step toward R-1.
- 2) Take a forward stance.
- 3) Execute a left middle block.

Back to the starting position.



1972년도 첫사업의 막을 올렸다

— 審判者講習會 盛大히 開催 —



대망의 1972년도를 맞은 본 협회는 사업계획에 의한 첫사업으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연 3일간에 걸쳐서 심판위원 강습회를 대한체육회 회관 10층 강당에서 무려 200명이나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되었다.

강습에 참가한 200명의 수강생들은 한결같이 내일의 태권도를 양어께에 걸머지고 중단없는 전진을 다짐했다.

한편 강습회가 종료되면 27일에는 반공 일선에서 노고하는 장병들에게 전달할 위문금을 모금하는 등 태권도인이 갖는 애국하는 일면을 엿보게 하여 큰 감명을 수놓기도 했다.

특히나 김 운동회장께서는 격려사를 통해 수강생들의 태권도를 위한 지도자적 사명감을 강조하고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새로 본협회 이사로 피선된 한 기옥씨도 참석 수강생들에게 첫인사를 나누고 태권도 발전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하여 수강생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강습회 종료식을 더욱 의미 있게 했었다. 심판위원 강습회에 참가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희삼	안대섭	변진석	윤오노	안종용
최예일	박성규	유봉호	박제철	김홍수
손욱대	김주훈	박봉서	이병규	김양일
노수상	김안수	오병천	배덕천	이명학
김일호	주연준	이도현	임석철	유철선
김보겸	김민철	남만회	박부철	이춘봉
김관옥	김영일	공세화	김삼천	김종철
주상일	백정열	김승호	정찬규	정재우
고의민	배용수	김창호	김용휘	원교식
김광신	김영욱	곽기욱	신인철	임순길
김홍수	고윤필	이성호	박진철	이치문
이창식	김영일	박병오	권영문	이명순
황지성	조근종	최형식	김종만	이계정
김한기	함춘교	배성실	최성환	유효환
김지용	김봉기	구정성	정탁	김태성
안정훈	이진묵	이형식	이태성	김상성
고국환	한춘대	김광훈	오삼호	박원지
심기연	최대인	정익진	임재복	이용철
홍정부	이인구	박해만	소정섭	김홍섭
김종보	원현희	권경욱	한철유	노영열
박종연	김원식	염주열	안영순	이성근
이승학	박병식	박남길	최한모	김희관
박용용	유호평	백남수	최동일	최홍준
이재욱	현영대	노상석	김진철	최한조
김정인	최희국	신종규	권오용	조민호
박용만	이원광	서정도	박강용	전태규
연성희	김대연	조경수	노영철	이두곤
장지영	한정식	박완규	김용길	
엄기형	최성식	김동철	박윤호	
김일식	정승구	김영택	이형식	
이영근	이태보	조항동	백용기	
		정진영	황광철	

RICHARD SOLOMON

昇段審査合格者

— 1971년 9월 12일 이후 —

제45회 審査

一般部

初段・서울 (1971・9・12)

강부원 崔善斗 오원석 金榮一
 송병재 劉浩振 김상원 孫男榮
 송명철 金蔣鎬 金健浩 金漢經
 丁平爨 李光源 金永鎬 金根炯
 申元澈 申炯泰 李章伯 辛相洪
 李炳完 金知坤 崔永山 李鍾勳
 李雲九 李東秀 韓光沢 金光洙
 金義竜 徐珍教 李夢実 金昌顯
 李拓熙 李相信 김계근 이희철
 韓基賢 송재영 洪伯善 金必沢
 이대근 李海允 우세근 李炳宰
 윤영균 李讚鎬 박승진 金基結
 朴元一 崔聖甲 王椿根 노창수
 林点相 崔 赫 李明洙 백창운
 吳世寧 金正斗 金鍾洛 池光佑
 金九股 姜利鉄 鄭禹憲 박성문
 姜利俊 朴商吉 吳允錫 金竜現
 李斗煥 金虎雄 安眠成 金基烈
 朴重光 權榮夏 金東成 鄭鳳來
 朴時結 全朱平 鄭源中 金江坤
 尹昌鎭 鄭國喜 潘成鉉 金洪勳
 孫在元 馮明誠 吳宗錫 배병일
 鄭泰俊 趙南烈 朴泰鎬 金基沢
 鄭鴻植 朴相萬 姜京哲 金浩鍾
 金京福 金承培 이진수 조영진
 吳瓊南 崔柄模 박순규 林光秀
 崔京煥 李達竜 張哲浩 池禹爨
 김봉남 羅健哲 洪敬洙 李昶用
 趙成植 金忠一 宋景永 金永福
 金光浩 崔周均 洪淳八 金光榮
 李尚山 이동준 金東震 정대진
 張煥珠 강성주 李河鎭 이한모
 金吉雄 손경린 김성수 손경근

金富根 남승희 金敏培 이찬화
 李相竜 육석창 李元均 탁관영
 朴奎煥 송윤섭 敵長爨 김해성
 金星煥 김근년 崔永圭 임영국
 金榮沢 李龜珩 박지훈 金明顯
 李基雨 金應德 배정일 문창현
 최 훈 박인철 김홍규 김삼걸
 洪根實 안동완 김용기 姜錫錫
 박선규 李浩承 BRADCLEMENTS
 TIZZARD SANJOY TERRY
 李允姬 辛祥得 全春子 李丁奭
 安慶子 안정순 조현숙 金美順
 박대순 宋正奎 金得淵 金光勳
 權順蓮 韓吉善 朴희진 문덕근
 金進守 權竜杰 金仁基 徐錫錫
 敵竜哲 宋聖學 崔聖晚 權基勳
 崔在莫 이은돈 김요진 李勇烈
 金采煥 남승우 李吉勝 朴尚道

初段・경북 (71・9・11)

孫濟坤 張性寿 張吉德 金應声
 林承鎬 林承國 林鍾洛 李鍾成
 申昌均 徐正道 金鶴雲 金孝榮
 池又輔 朴海植 李点道 黃運叙
 朴鎭石 유해주 趙八甲 李採鎬
 朴晚石 李海旭 張學敏 柳在鴻
 金光淵 金東星 李相百 崔永根
 孫基洙 權赫一 徐吉洙 崔珥玉
 權王奉 李永浩 韓一權 金鶴東
 李裕盛 張夏鎭 金基沢 金榮実
 文炳權 徐孝涉 柳群夏 權泰翼
 具本洪 徐正國 金芳美 千金律
 黃恩錫 魯胤榮 許 裕 韓永鎬
 趙玄成 呂相建 趙鍾明 정진우
 朴尚根 장세영 백승용 金元爨
 盧東石

初段・경기도 (71・9・19)

심성선 白七鉉 郭在遠 鄭然浩

金興俊 金基元 李吉洙 경철원
 박왕수 孫運植 李昇奎 朴鍾述
 趙恒濟 朴俊鎬 金孝煥 魏三復
 金漢中 崔炳官 洪性完 閔炳學
 李鍾竜 吳亨根 尹泰淳 차재호
 김교영 朴正遠 金光洙 金賢泰
 金仁爨 李厚子 朴喜連 진경구
 장명덕 金東鎭 朴한기 장기만
 박성수 이찬용 진용자 박희무
 박찬순 정종근 박경환 장일복
 이희훈 윤석중 박윤국 한재덕

初段・부산 (71・9・19)

김용경 박경근 이병조 조영진
 정경기 박태동 김성찬 김대우
 김경규 河二浩 姜明鎬 조경일
 김형한 김종승 김영수 김주호
 金哲泳 김기홍 박덕규 최상도
 오원배 임준용 鄭時和 孔淵漢
 이동우 韓政基 李相俊 金敬鍾
 朴鍾爨 朴炳鎬 陳炳浩 金致圓
 張重遠 孔泳台 金王根 김명기
 김광은 배종기 金泰衡 許 悅
 이진희 朴貞子 朴永東 田相重
 趙美先 차기철 경진원 崔錫華
 朴海植 김재일 金明坤 성라순
 金三術 金相哲 孫建國 丙丙國
 洪一鳳 姜浩一 孫建國 趙忠興
 金榮八 文三星 宋勇鍾 林永浩
 金永柱 姜壽식 李長隆 呂수근
 하원호 周民植 朴日鶴 박경애
 李敦熙 박재문 吳炳周 朴贊熙
 趙健行 康忠完 崔京鎬 孫景浩
 崔在星 林秀桓 金容赫 金容熙
 金教賢 장문현 김경수 하경우
 吳正烈 朴辰守 金容吉 鄭希模
 徐珍鎬 安外濟 宋煥永 張 爨
 河根世 石東植 金裕鎭 金承煥

高淳煥 姜海竜 徐尚日 李玉鎬
 金泰俊 韓東熙 黃榮斗 柳東求
 金大植 李奉柱 金聖秀 崔英雄
 洪碩埜 諸海榮 李相喜 許權烈
 金東桓 姜敬善 金益珠 朴泰文
 李相哲 崔榮鎬 李在玉 崔太文
 崔淳斗 李景浩 金鍾卓 신종기
 金永根 金東烈 鄭煥宰 鄭次吉
 金榮七 金圭沢 徐日錫 배광석
 徐慶浩 宋澈煥 金永鎬 金漢基
 姜熙熙 宋文基 孔斗瑠 李南浩
 李炳千 李鎮泰 延正憲 崔鍾官
 崔祥吉 崔鳳植 黃永植 윤창노
 朴鉄根 柳春男 尹東烈 金元圭
 池挽元 씨기섭 李仁鶴 이성길
 朴在吉 박종수 金斗永 金在水
 鄭雄安 趙泰濟 金斗永 유정호
 崔震白 金相道 韓圭圭 柳泰州
 金盛九 장성근 金源根 尹章宇
 柳泰昊 金聖結 金有福

初段 - 경남 (71. 9. 19)

정영훈 金秉和 씨기홍 金沢炫
 배계환 金寿男 배운규 河永穆
 朴正植 李守声 王漢春 李好慶
 김부석 河日出 박부권 陳煥模
 이현덕 鄭一松 鄭煥和 朴三道
 金憲坤 이영수 金在榮 具大會
 朴宗敏 姜尚勲 李龍海 李龍旭
 徐宇鎮 鄭政桓 鄭順鎬 朴英華
 孔潤圭 鄭補根 유부중 南相光
 崔相竜 이종영 朴相根 李亨範
 박영오 姜喜奎 鄭昌基 趙旺來
 溫煥奘 姜煥模 朴英淑 황상열
 유순덕 金斗先 姜容錫 崔榮民
 金元奘 崔景石 吳潤澤 宋茂容
 韓元玉 이종서 李彰洞 李鍾男
 安正煥 金德容 金泰珠 李判在
 李承煥 이현모 權潤基

TONY CARDINAL
 JERRY MARONEY
 RODERE S. WHITAKER
 BILL MILLER
 ED ACUNA

初段 - 전북 (71. 10. 17)
 廉斗玉 金鎬福 金聲結 安成協

羅在革 金國煥 申東植 李珍行
 金明官 朴相珉 李竜均 王然福
 柳鍾博 牟三鍾 梁春 洪周杓
 宋榮博 金成東 박영선 李永萬
 李竜鳳 李永福 金在日 김정현
 李植範 羅興德 朴鍾旭 金春煥
 柳晚起 朴根亨
 GAMES BURROW
 K. NILL JOHN
 JAMES ZACHOCKI
 박용수 민영성 鄭昌茂 金仁哲
 沈寬岩 등정열 朴赫 高在相
 田浴真 趙榮植 趙英真 金光鳳
 金兌基 黃俊植 薛文植 盧三植
 南相亨 高光貞 최희범 金甲奘
 구본익 梁承哲 李商模 林碩園
 李興福 朴熙善 尹柱弘 박신오
 姜晚熙 김경수 柳鳳圭 李相鎬
 趙誠學 박신용 권무근 李慶元
 林珉圭 방효신 高禮禮 최영철
 崔亨根 심재수 강준성 박문선
 최영덕 金東男 閔昭昭
 이영석 金南聖 李漢柱 권혁창
 손영선 김홍래 정영철 金明秀
 朴鍾官 金錫浩 崔秉五 金基奉
 高竜德 李竜浩 李英珍 李根植
 李英植 姜喜宅 林聖芳

初段 - 강원 (71. 11. 6)

鄭永煥 文沢 孫碩彬 崔鍾赫
 白旭鉉 朴兌熙 朴泰一 장대영
 임득재 김원규 이종만

初段 - 육사 (71. 11. 27)

金聖淵 鄭載鎬 박현석 장승환
 李相基 李光培 金榮培 朴容植
 明旺植 蔣東奎 金秉完 南敬洙
 金榮台 鄭錫辰 都甲鉉 玄寶煥
 朴權成 白光守 박영수 조기수
 崔德滿 정호진 李乙相 姜秉魯
 金大鎬 曹三鳳 禹昌圭 金貞愛
 황치문 유재성 강호성 임현덕
 김현석

JOE. FRENOAK
 JAME. B. GRAVIEE

진원보 이종영 진상보 원일상
 金永錫 송세권 이창성 이기호
 오진영 정문형 목운규 홍진강
 박영복 김법수 金起碩 權宰武
 朴元根 金日永 朴鍾演 申一澈
 신현덕 金康泰 서일석 양승용
 이상민 정승하 吳範植 金宗德
 신종인 박기주 吳範植 金元基
 金敬煥 추용철 장병문 徐泰鉉
 윤도영 김영대 조영길 이승조
 박봉규 백단기 金振奎 金俊一
 정성태 金炯川 김운태 沈明安
 金萬善 李宰善 심상진 황원성
 이태운 임병락 朴鍾一 李昌福
 崔蘭錫 金永沢 金福起 崔善珪
 劉煥利 金相植 金順基 全明善
 申東宰 김동수 朴元壽 南石右
 이강현 박문규 신현배 宋基榮
 朴鳳圭 黃秉南 權萬純 金長虎

中應奘 윤주학 具承謨 金潤坤
 孫明珍 劉鍾大 姜光錫 黃仁植
 權五鎔 張大奉 文漢宰 宋基文
 李大興 張鎮京 金元宰 許純永
 林弘默 金國憲 李啓隆 金榮萬
 林日鎬 趙承東 조성현 이영대
 俞別俊 高仁鎬 李範植 李啓惠
 나장배 權宰九 尹成泰 洪甲基
 黃成振 金基勲 朴鍾兩 鄭淳寔
 金洪奘 변상복 金炳太 全炳
 김남극 李成萬 鄭丙權 金基浩
 金尚烈 表永鉉 金鎬浩 文榮漢
 李賢익 朴充圭 朴商敦 李鍾植
 權榮達 金圭植 曹善教 崔永官
 金成玉 黃明寬 李奇泰 이한국
 黃春植 鄭哲秀 朴潤奎 朴柱泰
 田浩坦 李正九 이철원 李鍾勲
 정인수 朴熙萬 金大賢 吳亮根
 羅大奘 張東權 崔武哲 鄭文教
 梁東燦 이은식 全成東

二段 서울 (71. 9. 12)

李守夏 난남수 金忠男 白仁錫
 洪演基 權憲鎬 유재영 權明植
 池振煥 成德永 金義秀 崔仁永
 徐相浩 卓基柱 유진형 배영규

高慶和 金永革 최만복 안인모
金基亨 李華成 김기철 金義烈
조경진 崔文煥 朴泰根 朴柱天
유호진 이철립 이기형 임병기
박해근 具然海 金平國 김국환
김용진 張基煥 張東元 韓東京
이희경 金春玉 유수철 朴貞述
魯寅成 李炳俊 李宗確 金承基
李秉權 李炳宰 鄭顯星 최분화
최경조 尹永福 유해준 朴広治
趙炳貴 송유수 尹正奎 李昊範
安恒秀 李榮均

二段 경복 (71. 9. 11)

張基洪 朴允載 蘇乘允 徐亮教
金宰燮 白承大 權泰 洪性睦
尹炳福 李相弼 金光鎬 朴武洛
金光泰 이영철 金永一 宋相會
강준봉 유두환 박원로 심이호
李仁泳 朴淳建 崔聖度 李竜雨
朴秉一 배진근 李明雨 金永錫

二段 경기 (71. 9. 19)

韓沢洙 李漢柱 안성훈 서장백
朴同馬 鄭浩福 이종찬 李景模
李承厚 吳明根 이흥진 손관영
문신근

二段 부산 (71. 9. 19)

전신수 김철수 이진근 鄭昌秀
鄭文杰 朴來石 禹烈坤 金海成
林昌植 田章秀 송기동 孔永勳
李慶然 朴銅明 白天均 吳竜煥
배종권 李東鶴 林錫來 최성락
崔守錫 朴在竜 崔成大 정의만
韓裕根 李東數 전상민 조영안
이현준 구상철 盧工愚 鄭大元
宋孝二 李昌燮 金鎮福 金東植

二段 경남 (71. 9. 19)

朴明源 尹海相 朴容德 昔孝文
강순석 김영만 정안숙 朴奉讚

전북 二段 (71. 10. 19)

변상철 金桂洙
PETER KONSTANTS 鄭正奘

金善東 권순종 김병찬 우성길
이득수 장지부 김홍진 김석재
김봉재 정산형 南光淑 徐元竜
김영후 이재식 김인성 尹昌基
김윤기 김복경 朴尚植 金英希
李尤和

三段 서울 (71. 9. 12)

金正沢 梁範錫 홍순길 金浩善
許松 李相基 姜文道 柳錫悅
배한준 崔貞利 정영현 李興善
徐凡錫 김근배 郭尚煥

三段 경북 (71. 9. 11)

정삼석 吳仁守 尹崔株 權重來
鄭台鉉 孫英河 오익환 崔省大
박재홍

三段 경기 (71. 9. 19)

최성환 이승구 전용구 朴京男
김재영

三段 부산 (71. 9. 19)

朴雲祚 李孝柱 박영복 김상현
朴在鍾 崔正國 金光伸 宋堯植
宋鍾台 金容浩 김장섭
三段 경남 (71. 9. 19)
金常吉 禹在哲 황희철 조규남
尹明洙

三段 전북 (71. 10. 17)

金德振 김승호 이상출 최경환
김종예 고재상 千龍元 黃天潤
李正煥 金啓烈 안원국 趙明根
金宜昊 河銀浩 崔亨烈 朴性民
박상용 최상진 김양기 鄭尊雄
박정성 鄭竜源 卍鍾奉 양만근
盧富貴

四段 서울 (71. 9. 12)

尹昌煥 金慶安 金仁太 崔鶴
李亨魯 金裕源 朴偉政 金祥烈
윤영환 孫明鉄 라영철 李昌秀
이재철 吳炯煥 고부래 高明宜
李相準 朴起東 김경환 姜竜模

五段 서울 (71. 9. 12)

金芳燮 서영중 鄭東熙 鄭雲甲
邊鎮錫 李康大 許泰會 김만금
朴來吉 李洪植 崔鎮國 李宗鎬
金威樹 黃大鎮 具永春

제46회 審査

《一般部》

初段 - 서울 (71. 12. 5)

宋信憲 白先東 姜基濶 丁相植
任益淳 李廷賢 朴斗夏 羅甲柱
盧基燮 李起陸 金世煥 成甲熙
노영주 金淳貴 金貞年 劉奉鍾
에병덕 朴淳植 韓祥益 宋基成
趙南定 許南浩 배재호 김준진
吳石重 朴竜甲 강연 羅炳文
申甘雨 金哲真 朴良洙 최봉현
김동현 李智賢 尹汝成 金本
최명수 李庸先 이동용 김진철
金秀寧 趙光哲 이기성 金均彦
염종갑 李榮祥 趙判甲 金孝一
梁圭植 沈場燮 박재준 李貞浩
장사배 이종찬 김상용 辛承明
朴烈烈 김광익 하상용 주현수
이홍주 안대연 한탁돈 金齊經
공상배 윤상일 유춘화 朴君星
趙容植 李正洙 吉教燮 洪性賢
김동성 왕중운 정병선 尹汝煥
朴天竜 朴恒均 楊重熙 李林峰
김외복 金在浩 孫在逸 朴林模
趙峻培 李東星 李丙昊 金東圭
金容孝 慎松燮 조희원 李汝鎬
崔秉吉 李哲宙 李在奎 金志洪
徐甲奉 朴春洙 이오용 李点童
盧有東 신운혁 김문규 孔恒泳
윤석철 金光星 유승철 柳建熙
鄭德鎬 盧淳道 沈載哲 姜泰鳳
鄭求昌 柳恒烈 서영주 安成振
昔海植 徐東秀 李德鎬 朴秀煥
안덕현 金孝振 李鍾善
梁在仁 최덕병 李庸和 李영제
張基榮 金鎮洛 金炳達 金俊煥
趙雲海 윤승로 李相局 朴浩圭

제 8 회 審 査

少年部

初段 · 서울 (71. 9. 12)

金大旭 玄益秀 유세영 김영현
정영환 徐甲弼 임광진 李晶輝
李文成 이규담 金滿奎 徐炳勳
임양빈 김세연 都秉熙 李錫行
黃竜培 金永圭 朴炳奎 金成竜
李興允 김재익 김현옥 李大慶
孫泰翼 丁海成 慎信子 金玉子
이해운 최현숙

TERRY CARTEL

SEEVEN.D CRAYTON

소칠호 張容範 朴昌斗 김찬옥
朴生奎 楊南鍾 石寅煥 金長圭
李石子 고재석 현경찬 조영숙
權寧國 金泰善 禹惠英 柳培永
金亨益 金興祐 최선호 陣承俊
河晶石 金容河 이경숙 馬福順

RRV OCAMGIU AO.WANYMA

AF.ODUT SO.KIDEGA

WILLIAMF WEIR

BUTLER JOHN L.OL

CHAMBERS ROBERT.D.

LAWELNCE E.HUFF

權榮洙 정하린 박정자 박대호
최준식 홍길관 이상철 도주찬
이동원 이호신 안준호 조옥현
손경은 이재극 김기환 김영기
전달형 구재관 洪鍾亞 전영진
석영호 金載汪 韓泰仁 박석래
박성규 이태오 宜日永 이상근
馬永盛 李敏榮 李竜大 吳相轍
徐鍾泰 盧鎮漢 朴官用 金廷培
金永德 金周竜 金在弘 金永有
金宇辰 정진천 鄭明鎬 李漢翼
中浩俊 黃錫根 李裕浹 崔德圭
安承鎮 金在德 김홍가 안준호
황인식 李永基 李庠基

MIKE.E ROSSON

DOUGLAS BUCKLEW 金大允

具茲文 鄭誠薰 李在弘

이성백 林昌洙 尹柱伯 鄭有星
安政豪 姜泰順 李南起 전시우
李鍾憲 정 운 오재준 孫昌玉
양기복 丁海元 李南竜 李영락
朴玆完 金炳一 全周煥 張首堅
高世畋 朴相俊 孫權培 金成鍾
李在坤 李順德 전찬규 金宰亨
崔洪山 朴正國 洪湘帛 康濟旭
崔根榮 全守仁 안만영 任 松
高駿榮 김상하 金東浩 金一亨
李祥滿 金時永 송명근 姜承求
李詰浩 朴泰成 李相一 박정돈
李承柱 李圭泰 이성남 이영돈
韓庚民 吳鉉昌 金正樹 金 政
皮永千 鄭準鉉 이준은 朴志遠
盧尚洙 周鍾宅 안원일 李赫峻
朴廣熙 鄭泰鎮 박호석 李政勳
韓奉錫 李峻誠 조영일 李光峻
柳承烈 鄭榮鎬 정광용 金容培
洪錫詰 崔東瓊 민형기 김조경
金一鎬 丁振源 박정환 許成圭
朴永逸 文誠炫 鄭 浩 李南憲
권경업 朴明哲 이진훈 呂聖九
皮永文 魯昌吉 安在勳 임태희
安寬佑 柳昌烈 주종남 車成鎬
金泰元 황혜선 朴帝鎬 金桂鴻
李明德 魯昌文 이찬만 林安爰
文孝宜 金浦淳 權盛基 李旺烈
徐源哲 李東訓 남정갑 林成爰
李鎮起 朴承竜 車遠東 趙眠根
崔勝羽 徐源吉 김의석 李 政
박영관 安秉珍 金正晚 이세우
金五星 沈基詰 안영진 洪鍾厚
명화선 이수향 吳日男 안동선
李基榮 金聖柱 유예주 李定娟
김승섭 김진상 金鉉基 정덕영
朴秀子 洪命熙 車珍錫 李正吉
주명훈 朱寅白 朴用彰 홍기선
韓尚憲 朴石奉 유우석 李彰宜
정재식 남경석 任炯彬 金賢泰
田貞熙 李星奉 李永鳳 白世鉉

金範重 韓潤浩 元明植 柳德源
김병철 황인규 김영호 金仁基
정효동 閔載喜 金英基 권용일
閔聖喜 金宰煥 나희철 元慶載
梁在竜 김경규 장용신 全允植
金裕宗 김용선 김석중 유한주
朴成大 진성찬 高斗善 시종원
李世衡 지민정 金基元 최명선
鄭宇均 원종연 李康鎬 권오준
孔仁錫 서요환 朴炳柱 김지배
권영수 정준섭 이호용 김현수
崔文錫 李光潤 朴明烈 박상윤
文永燦 金聖日 이선강 林泰植
호광진 金芳容 김종원 강대진
崔載浩 한명희 崔錫台 朴海榮
이훈식 郭錫泰 최완용 尹盛煥
李京鎬 李永鎬 張鍾甲 장현일
鄭玆吳 이상수 박영집 변지봉
이성용 임경순 양정현 진홍용
김규식 김기오 손광호 鄭求先
강명식 李光熙 金大鉉 張正勳
노춘철 崔東國

初段 · 경북 (71. 9. 11)

김이민 김철환 朴正男 柳三坤
朴鍾大 劉文鍾

初段 · 경기 (71. 9. 19)

金東俊 朴명준 圭교철 윤여백
이종수 殷成鎬 金吉榮 鄭丙浩
李竜辰 羅晶一 羅文一 羅憲一
李宗潤 이장수 金東源 한지홍
金明吉 朴順基 李冕哲 申顯宅
崔昌鎬 安榮鐸 차진봉 吳京植
金元善 이은재 徐裕昌 金明善
元鍾安 金明俊 沈慶美 김효준
송광호 朴正陽 장영진

初段 · 부산 (71. 9. 19)

洪性柱 黃 允 유승문 金延郁
辛周峰 崔在得 조병호 韓東烈
강운철 張東壽 鄭有哲 朴基業
南基元 姜永贊 全浩元 권길현
안인수 鄭鍾元 白 鉄 鄭延仁
안기철 崔星一 崔祐楨 高載豐
玄상식 김인수 김은석 손경동

朴和容 姜哲信 김진찬 황철민
李相敏 李相奎 황철수 김금희
강현조 朴成基 李相徹 김금旭
안승갑 이용석 宜慶敏 김東源
김은석 尹勝柱 박종근 鄭南一
김광출 李丙鄧 조석완 李在歡
유기현 朴永秀 노경각 김규형
이도영 이용덕 박재승 조명우
반영균 김형철 김尚俊 장효성
高孝善 崔正錫 田德岁 崔珉閣
薛東辰 나도업 李相傑 高大永
李潤錫 韓承秀 崔容碩 趙成浩
宋英一 신인용 李元植 朴容成
劉永珍 李良雨 朴忠慶 李天秀
석금성 朴大元 李政業 鄭松仁
변철기 陳光奎 李竜雨 李炳熙
朴仁吳 정위영 이랑권 김榮九
최명수 孫弘來 朴相沃 김동민
李俊熙 李泳出 황재봉 申亨珍
이상희 김경찬 김유敏 禹忠哲
高德權 이은성 金昌圭 金善哲
柳聖湖 이성우 李榮皓 李元模
金聖基 崔光浩 최준호 최광민
朴株完 李重根 黃潤哲 文錫同
魏承辰 金 光 鄭順吉 趙晚철

初段 · 경남 (71. 9. 19)

李重和 이만희 정성철 朴洪石
權性鎭 崔敬鎭 李鋒宰 鄭然雄
韓昌昊 權重根 金竜吳 李尚默
具文植 郭俊錫 高鍾烈 장성운
박명수 김용권 심희우 金員수
姜千煥 장진수 김지용 李秉權
徐榮秀 최대욱 소명환 朴照孝
PAUL CARL
李相奄 조재천 엄태일 黃錫浩
李相均 鄭典鎭 박종만

初段 · 전북 (71. 10. 17)

李日雨 姜聲一 鄭載郁 宋昌秀
宋榮福 申鍾明 姜鎭鎬 金炳涉
姜聲錫 金容台 丁灵洙 李載旭
姜聲榮 閔奎洞 宋鎭需 鄭聖烈
김성철 장석길 이후봉 박성철
李銀竜 朴萬基 조인호 李光孝
姜範碩 洪元均 申昌星 배성규

임환성 崔鍾秀 安弘植 황덕수
황성수 金甲中

初段 · 전남 (71. 9. 12)

최정근 李亮錫 李政勲 許承
李康碩 李泳珍 金在光 崔昌植
朴錫晚 崔慶熙 김재운 金 鎭
李基承 池용철

初段 · 강원 (71. 11. 6)

홍석범 朴光秀 金殷起 김장수
정광철 우명호 최선후 김철수
김범열 오재현 정동철 박건영
권오철 이장만 김기수

初段 · 서울 (71. 12. 5)

洪東勲 徐康萬 池在鉉 김관기
印 岩 박홍식 김형기 王永南
鄭健和 金永彬 黃鍾性 姜明鎬
林莊默 鄭基天 金學成 金奎奎
金炳辰 徐英守 金智東 金振奎
金昌奎 崔勇虎 金宗彦 박노식
申東鈞 朴柱相 成洛允 김보수
李雲鈞 李庭수 成洛元 李喜俊
김기창 朴性文 정택관 김기서
김해혁 李海星 孫教周 최용석
吳振豪 박용수 成洛奎 하재명
盧載弼 全載源 洪俊俊 邊聖元
宋炳一 張晚鍾 白仁在 朴昌源
崔延圭 朴弘植 김태현 金漢奎
朴榮國 南命徹 金顯容 金美羅
朴岐浩 송현상 李東錫 韓相一
조재현 林時鍾 李元基 성남호
徐明進 張炳一 金成俊 김대우
최재완 金文鍾 尹宰重 金利坤
황윤상 金相榮 田正基 오기수
우용계 千炳기 鄭讚基 김일한
강성철 金聖美 咸진斗 梁千錫
노기영 金榮森 邊相孝 高榮秀
安文善 林 學 김성영 任戊혁
유경년 張奎元 백영민 신현수
林起徹 林鍾烈 김한경 金 潤
김정열 朱昇錫 김현덕 申彦優
徐延錫 金性宇 조태영 이갑재
李鍾璣 張盛旭 李 健 손강호
李成男 孫重根 김광환 진종현

崔煥昇 田宗晚 李成哲 安상철
朴慶桓 李眞雨 李碩柱 김홍수
趙大煥 李鍾圭 이호수 趙榮煥
明永錫 朴宰賢 林容漢 崔逸盈
朴相煥 尹汝珍 金載潤 이 현
金仁涉 鄭哲泳 마성만 김동철
金正鎬 이선복 洪基杓 신인균
정연호 金泰逸 배장현 하종호
鄭聖憲 김범주 김영찬 尹鍾國
金泰局 이정선 崔在吉 金仁基
李在榮 沈相旭 徐榮準 邊聖勲
조성진 李允熙 조범용 김지연
金憲台 徐경민 趙成培 김정환
徐日教 柳漢七 노승환 徐敬源
李田雨 金俊錫 고성재 李吉柱
南永俊 김승현 李基安 金東熙
金竜來 정근형 이범진 金弘涉
권영호 金相模 鄭尚勲 박수홍
郭貞植 李竜奎 李修吉 마수眞
김석계 이강현 申盛植 이혜민
趙棟熙 徐載善 宋基浩 최 현
崔一煥 李大鴻 柳英末 黃聖元
최한철 全相哲 尹正秀 김용환
李弘規 김우제 金學範 이 철
이창학 홍정완 강철훈 李 赫
金大承 陸鎮형 윤창호 尹秀鎭
姜東吳 張光來 李鎭浩 金正九
張承俊 김성연 金峻蛟 김영탁
金鍾林 김상준 조대일 成根晳
李鍾元 咸春成 김중호 金秉允
金和賢 김중화 한영우 獨孤貞
楊正烈 김중석 백상현 韓榮哲
申성철 김문덕 金敬源 林憲求
안승관 劉弘鍾 김상욱 朴鴻植
許延弼 金榮鎬 李元敏 林度煥
姜翼弼 최준현 朴峻民 方聖勲
林承業 최덕현 方聖昊 徐榮秀
이병호 박성하 박성실 박경훈
이유경 윤우명 김창근 유상열
尹才錫 鄭澤佑 이경노 羅忠吉
최종호 楊鎬鎬 金成哲 진영진
강현식 金成煥 이덕현 권효상
김봉식 최현호 임근도 원광식
김용선 김경철 李圭和 金成童
朴宰永 최현수 임현수 承民培
진진용 權武植 李時鎬 金台顯

(다음호 계속)



世上 万事와 跆拳道

羅 碧 浦

얼마 전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에선가 《世上万事》라는 시간에 跆拳道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男女 두 「코미디언」이 빈잡아 가면서 — 어깨에 힘을 주고 나, 태권도 X 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 가깝니다. —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술잔을 우지끈 깨물어 놓고 목에다 힘 주는 사람, 이거 가깝니다.

— 옛날에 장난치다가 손에 난 상처 자국을 가지고 “나, 태권도……” “운운 하는 사람, 이것도 가깝니다. 라는 식으로 한창 신이나서 지껄이는 장면을 보면서 웃음을 금치 못했다.

사실 태권도 하면, 이미 국기(國技)가 된지 오래고 또 세계만방(世界萬邦)에 퍼져 있는 명성에 못지 않게 국내에 백수십만이 넘는 태권도 인구를 가지고 있다니 그런 까닭들이 생길 법도 한 일이겠다.

맨손으로 벽돌을 서너장씩 깨고 기와 이, 삼십장울 단 때에 내리쳐 박살을 내는 걸 보면, 사실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라도 “나, 태권도 X 단인데……” 하기만 하면 겁을 집어 먹고 눈치만 살필 정도가 되겠다.

우리가 태권도의 그 무서운 장력(掌力)이나 권법(拳法)을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고, 하나, 하나 불가사의한 일이 있으니 그 「프로 레슬링」인가 뭐가 하는 걸 보면, 중계 「아나운서」가 입에서 침을 튀겨 가며 〈아무개 선수가 드디어 태권도 「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을 때 정작 맞은 선수는 유연하게 나가 떨어질 뿐 맞은 부분이 으스러지는 걸 본 일이 없다. 허기야 인체의 강인함에 놀래기도 하고 상대편이 그만치 강하다고 믿기도 하지만 어쨌든 불가사의라. 연젠가 장(張) 원가 하는 선수가 〈「프로 레슬링」은 「쓰」다〉하고 외치고 「이미지」를 깨물어 놓고 난 후 부터는 그 신나던 「프로 레슬링」에 대한 열기가 약 사서버렸지만, 그때도 요샌 “어떻게 멋지게 연어 맞고 재미있게 넘어지나?” 물 보고 싶어 그대로 본다.

연젠가 술집에서 약차스럽게 생긴 왜소한 한 청년과 태권도 5 단이라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거대한 체격의 청년과 시비가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 거인

친구, 통 싸움을 받아 주질 않고 겸손게 몇 마디 말만 올 던지고는 후퇴해 버리는 거라 좀 실망스러웠다.

그 후 어느 날, 태권도가 두어 서너단 되었을직한 조카녀석이 놀러 왔기에 그 녀석을 붙들고 금금증을 붙였다. 조카 녀석 말인 즉,

태권도는 가장 훌륭한 무술일 뿐 아니라 정신 수양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신체적인 자신감은 오히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싶고 반대해 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技) 뿐만 아니라 양식(良識)을 주며 태권도를 배우는 목적은 신체 단련에 못지 않게 인격도야에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나는 이때 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 습성이 생겼다. 태권도가 무술로서 나날이 그 인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도 알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 태권도 공포증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가짜 태권도에 대한 공포증이였다.

마침 목욕을 갔다가 어느 두 청년 사이에 사소한 일로 언쟁이 벌어 지다가 싸움이 된 것을 목도했던 것이다.

— 야! 이 X X 야, 이래봐도 내가 태권도 3 단이야, 이 X X 목 때를 분질러 줄까보다.

(야차!) 하고 그 장면을 예의 주시하는데 잠자코 있던 다른 한 청년이 몸을 쓰는가 싶더니 태권도 3 단이라고 떠든 청년의 코에서 선지피가 터져 나왔다. 놀람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해서 한쪽 구룡이에 서서 보니 차침 태권도 3 단, 눈이 뒤집혀 가지고 꼴롱이 고 깔판이고 닦치는 대로 집어 던지는 거라, 사람들이 말려 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자 몸이 빠른 그 청년,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목욕을 시작했다.

하도 이상해서 청년 걸음으로 다가 서서,

— 큰 변을 당하셨쇼.

하고 말을 붙이자, 그 청년

— 필요. 제가 태권도 1 급인데요, 저런 가짜때문에 큰일입니다.

하여간 가짜 태권도만은 무섭다. 닦치는대로 집어 던지니 그 경우없는 만용만은 무서울 밖에.

“不惑之歲”

최 효 길



불혹지세(不惑之歲)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남자 나이 40을 일음이요, 남자 나이 40이 되면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자세를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어느덧 내 나이가 40을 갓 넘어 있으니, 감회가 새롭워 질이 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한 친구가 어느날 자리를 함께 했다가 불쑥 걱정스러움을 털어 놓았다.

“이거 큰 일 났어.”

“큰 일 나다니?”

“배가 자주 나와서 말이야”

“몸집에 보름이 있어 좋잖아!”

“말도 말지, 해놓은 것 없이 배만 나왔으니 남보기가 민망스럽고, 그리고 조금만 높은 곳을 올라도 숨이 차 와서 죽겠다 말아야”

이러한 화제는 자연 배를 빼는 방법론으로 번져갔다.

나는 등산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한 데서 얻은 산 지식이었다.

한편 상대방은 탁구론도 들고 나오고 「보-링」론에다 심지어는 골프론까지 펼쳐 놓았다.

그 친구는 어느 것 하나 체험하지 못한 들은 풍월들의 상식이었다.

갑론을박, 을론갑박의 두서없는 말꼬리를 펼쳐 놓기로 시종할 뿐, 어느 것 하나 그 친구의 마음을 잡아 주질 못했다.

그리고 있는 사이에 또 한 친구가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물론 이 친구도 우리들의 화제에 한문 거어 들었는데 이 친구는 엉뚱하게도 배를 빼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태권도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

우리 두 사람은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 받은 얘기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일찌기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론이었다.

그 친구는 열을 올려 배를 빼는 데는 태권도 이상 좋은 운동이 없다는 지론을 침을 튀겨 가면서 늘어

놓는다.

“알몸등이가 되어 도복으로 갈아 입고 한바탕 뛰고 나면 맘이 딱 전신을 적시는데…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면 날듯이 몸이 가벼워져요. 어디 그뿐인가, 허리가 유연해지니 평상시도 동작 하나 하나가 마냥 경쾌하다구요.”

배가 나와서 고민하던 친구는 넋을 잃고 귀를 기울이다가 결심을 한 듯,

“됐어, 그럼 오늘 집에 틀어 가다가 태권도 도장을 찾아 보기로 하겠어.”

과연 그날 저녁 그 친구가 태권도 도장을 찾았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다. 어쩌면 지금쯤 그 친구는 태권도로 40대의 고민을 털어버리느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 오면서 몇 번이나 내 배 언저리를 쓰다듬어 봤다.

숨이 차 올 정도로 나에게서는 40대의 고민은 없는 상심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나도 그런 고민에 빨려 들지는 예측 불허다.

주위 친구들이 40대를 헤아리면서 부터 하나둘 이런 고민으로 심각한 표정을 짓는 수효가 늘어가고 있으니 나도 미미미미 예방책을 지금부터 생각해 두어야 하겠다.

옛날에도 그러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할지만서도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40대만 되면 으레히들 이 문제로 신경을 써야 한다.

남자 나이 40이면 불혹의 세대라는데 이렇듯 엉뚱한 일에 우리를 40대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한 데서야 말이 아니다.

진정 태권도가 우리네 40대에게도 좋은 운동이라면, 좀 더 널리 이 사실을 알리어서 불혹지세의 고민을 덜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하여 불혹지세에 마음놓고 인생을 개척하고, 사회적인 봉사력을 증대할 수가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겠는가?



벼락감투

한 동 근

구 종직(丘從直)은 성종 때 사람으로 자는 정보(正甫)요 안 장공(安長公)이라고 했었다.

구 종직은 보잘 것 없는 평민 출신으로 어려서 성균관(成均館)에서 하인으로 일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었다.

그러나 워낙이 영특한 사람인지라 성균관에 몸담고 있는 동안 생원 진사들이 글 공부하는 어깨 넘어 뜰틈이 경서를 익혀 언계고 뜻을 이루리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었다.

옛말에 서당개 쓰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했지만, 성균관에 몸담아 수삼년에 남다른 재주가 번득인 구 종직이었다.

이리하여 마침내는 그 재주가 성종대왕께 인정되어 교리관정자직을 맡게까지 되었다.

정자직이라면 오늘날의 문서나 책자를 다루는 것으로 구 종직으로 봐서는 다시 없는 출세의 길목이 열린 셈이었다.

그런데 정자직에 오른지 얼마 안되는 어느날 구 종직에게 당직이 돌아 왔었다.

당직이라 함은 오늘날의 숙직과 같은 역할로, 밤이 이슬하고 또한 달이 밝은 지라, 구 종직은 이리 생각 저리 궁리 하다가 문득 머리 속에 경회루가 좋은 소문이 떠 올랐다.

밤은 깊어 인적이 끊긴 궁중인지라 이런 기회에나 경회루 구경을 하자는 생각에 구 종직은 발걸음을 서둘렀다.

휘영청 높은 달빛에 경회루 아름다운 모습이 못가에 잠겨있으니 구 종직이 황홀함에 잠시 넋을 잃고 있는데.

“게 있는 게 누구냐?”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구 종직은 그만 화닥닥 정신을 차리고 호령치는 쪽을 바라본즉슨, 성종께서 내시를 거느리고 서 계

셨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그만 구 종직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죽을 때라 그만 길을 잘못 들었는가 하옵니다”

이렇게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어이할 바를 모르는 구 종직에게 상감의 불효명이 또 떨어졌다.

“어디에 봉직하는 누구지 이름을 아뢰어 보아라”

“네! 교서관에 봉직하옵는 정자 구 종직이 읍니다”

“음, 그런데 어찌해서 여기에 왔느냐?”

“신이 들으며 경회루의 옥주와 요지가 천상선계라(天上仙界)하옵거로 지금 당직하다가 잡히 물래 보려 하옵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성종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담으시면서 노래를 할 줄 아느냐고 은밀히 물으셨었다.

이 또한 너무나 뜻밖의 하문인지라 구 종직은 얼떨결에 할 줄 안다고 대답을 하고야 말았다.

그러자 상감께서는 한번 불러 보라는 하명이 내렸다. 예사시에도 상감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 한대두 사지가 떨려올 판국인데, 감히 정승도 상감의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경회루에 구 종직이 함부로 접근했다 상감의 눈에 띄었으니 노래까지 부르시라는 하명이요 보면, 구 종직의 몸은 태풍 속에 버드나무 흔들리듯 떨려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명인데 거역할 수가 있었으리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구 종직인지라 뉘대로 피라는 심정으로 목청을 들지어 길게 가락을 뽑아 냈다.

그러자 상감께서는 얼굴 가득이 웃음을 담으면서 경전(經傳)을 읽 줄 아느냐고 또 하문하는 것이었다.

구 종직은 자기의 실력있는 대로정직하게 춘추(春秋)를 읽다고 아뢰자 상감께서 또 외보라는 것이다.

구 종직이 성균관에서 들은 풍월로 외듯 춘추를 큰 소리로 줄줄이 내려 외었다.

끝까지 이를 경중하시던 상감께서는 무릎을 탁 치

시면서 크게 칭찬하는 것이었다.

이 또한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라 구 종직은 어리둥절 어이 할바를 모르다가 상감의 휘가를 받아 당직실로 되돌아 왔지만 틀림없이 내일 아침 조례시에 자기 목숨은 살아 남지 못할 것으로 지레 짐작한 구 종직이 꼬박이 뜬눈에 한숨으로 밤을 지냈다.

그런데 날이 밝고 조례가 시작되자 상감께서는 문무백관들을 향하여

“여봐라, 짐이 어제밤 인재를 한 사람 얻었으니... 교리관의 정자인지라 구 종직을 부교리로 등용하였다.

구 종직이가 놀랐음은 말할 것도 없고 상감의 갑작스러운 하명에 문무백관이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질 밖에 없었다.

그러니 자연 반대론이 상소될 밖에 없었으니 인재 등용에 난백상을 이루어서는 안된다는 상소를 귀담던 상감에서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이 중에서 춘추를 거침없이 읽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

과연 상감의 추측대로 문무백관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는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자신있짜 읽 수 있

다고 나서는 고관이 없었다.

그러자 상감께서는 또한 큰소리로 외치며 꾸짖되 “알아야 정승을 할 것이 아니냐, 자, 그럼 구 종직이 한번 큰 소리로 외어 보거라” 구 종직이 청상유수로 거침없이 춘추를 외어가니 또 다시 상감께서는

“모두들 보고 듣거라! 귀관들은 입으로만 떠들 뿐 속은 텅텅 비어 있지 않은가?

이래도 구 종직의 등용을 반대할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상감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쳐다 보지 못하는 문무백관들이었다.

이리해서 보잘 것 없는 신분이다 고작 정자벼슬직 밖에 못하던 구 종직이 일약 부교리직에 올라 앉았음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었다.

뜻밖에도 벼락 감투를 쓰게 된 구 종직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정성껏 일에 열중했으니, 크게 몸을 일으켜서 성종의 두터운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다.



각종 태권도 대회

1. 전국 국민학교 우수선수 선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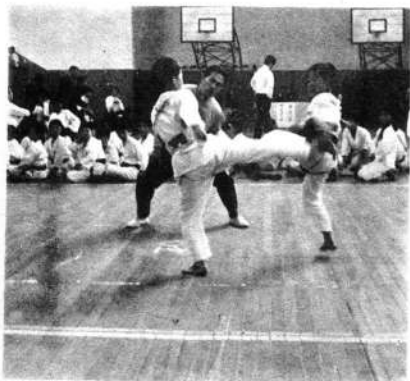
주최 : 대한 태권도 협회

주관 : 대한 태권도 협회

일시 : 1971. 10. 30~31(2일간) 오전 10시

장소 : 한성여고 체육관

참가인원 :



A 조 (1~3학년)

체급	1 위	소속	2 위	소속	3 위	소속
민	박승철	춘천국고	임동익	사동국고	김진수	순천근화국고
					나장호	신석국고
푸라이	임정규	중앙국고	김상태	남태문국고	도용식	춘천국고
					조인식	중앙국고
편합	최용	원주국고	이성수	중앙국고	정연수	신석국고
					이후재	동명국고
페티	한제현	구포국고	황민숙	사동국고	박기용	후암국고
					김재진	서림국고
라이트	이병술	남성국고	이기안	창신국고	홍민주	한림국고
					김성수	태동국고
플터	김은식	명신국고	박종익	청운국고	박용주	용강국고
					신종주	창신국고
미들	이영선	사동국고	김종호	창신국고	정영만	서흥국고
					김범중	노향진국고
헤비	임근영	경남국고				

B 조 (4~5학년)

체급	1 위	소속	2 위	소속	3 위	소속
푸라이	김장복	무학국고	유호일	예산국고	권영준	춘천국고
편합	박만기	예산국고	최민국	사동국고	김정택	동명국고
					김상현	일산국고
페티	김용호	미산국고	조승희	중앙국고	장승길	춘천봉의국고
					유용훈	동명국고
라이트	김기범	이문국고	강기명	삼양국고	민병중	미동국고
					김신승	한림국고
플터	강진홍	공덕국고	이승연	수색국고	정덕환	송림국고
					조태용	용강국고
미들	김정운	안양국고	이규남	중앙국고	노영철	사동국고
					김학현	창주국고
헤비	하경현	배정국고	손홍태	막성국고	안형식	동신국고
					김상훈	송내국고



2. 전국 여자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주최 : 대한 태권도 협회

주관 : 대한 태권도 협회

일시 : 1971. 10. 30~31(2일간) 오전 10시

장소 : 한성여자 고등학교 체육관



3. 1971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주최 : 주관 : 대한 태권도 협회

일시 : 1971. 11. 13~14(2일간) 오전10시

장소 : 한성여고 체육관



일반 고기부

체급	1 위	소 속	2 위	소 속
핀	권영운	청도관	정연호	무덕관
푸라이	고철규	영광실업	한동식	창무관
뺨탐	박현종	조선대학교	임홍수	명지대학교
페터	이경연	명지대학교	강문도	한양대학교
라이트	곽관식	조선대학교	라종열	성균관대학교
웰터	이중기	전국상고	이상철	해병대
미들	정진송	해병대	최상진	지도관
해비	서동원	우석대학교		



일반 중기부

체급	1 위	소 속	2 위	소 속
핀	손태환	광성고교	심형기	소사농고
푸라이	이철주	동산고교	장석희	동산중학교
뺨탐	라동식	한무관	이근우	명지대학교
페터	이광훈	성균관대학교	김종진	조선대학교
라이트	박연환	우석대학교	유영갑	광성고교
웰터	김철환	동양공전	장재우	창무관
미들	박영돈	청도관	양연관	성균관대학교
해비	박수남	강덕원	주진희	지도관

중앙도장 기공식



김 운동회장의 식사



関文教部長官의 祝辭



내외귀빈



역사적인 순간



1972년도의 포부를 피력하는 김희장

이런 일

A PICTORIAL REPORT



김 용운회장과 모국을 찾은 정 석중사범

대의원 총회에서 이 중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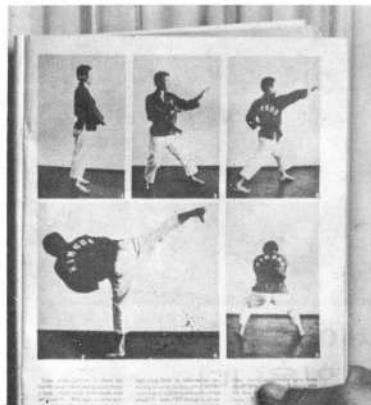


엄 윤규사무총장과 솔로몬씨



저런 일 OF CURRENT EVENTS

심판위원 강습



해외사범들의 활약상

19.30 Uhr
Jahrhunderthalle
Hoechst



Korea
Indonesien
Venezuela
Türkei
Libanon
Griechenland
Italien
Dänemark
Frankreich
England
Niederland
Deutschland

VORVERKAUF
Preis: 1,-
Frankfurt
Frankfurt
Wiesbaden
Main

Nähester Buch- und Briefversand:
Toll-Druckerei, Schwanenstraße 40
Tel. 621319
Kunze-Verlag
Wiesbaden
Tel. 273449
Tel. 273449
Tel. 273449

당신도 체이스의 고객입니다.



당신의 언어로 체이스는
당신의 번영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업체에 대한 외화대출이
폐행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폐
행이 제공하고 있는 수출산업용
시설재 도입을 위한 외화 대출액
은 폐행이 제공하고 있는 다른모
든 종류의 대출액 합계와 맞먹고
있습니다. 체이스는 현재 70개이
상의 수출업체에 외화 자금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
든 장비가 외화대출의 대상입니

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표
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그
리고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국의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 외화
자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니
다. 앞으로 귀사의 확장, 근대화
또는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외화
자금이 필요하시면 체이스를 방
문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한국
에서 한글로 영업을 하는 은행입
니다.



THE CHASE MANHATTAN BANK, N.A.

서울지점 : 서울 중구 을지로 1 가 50 전화 : 24 - 2471/5

부산사무소 : 부산시 중구 동광동 1 가 5 전화 : 6 - 4770

各種大会



世界속의 跆拳道

내일을 점치는 숨씨



이 경명사범과 서 윤남사범

아이버리크스트 (匪阿)의 김 영태사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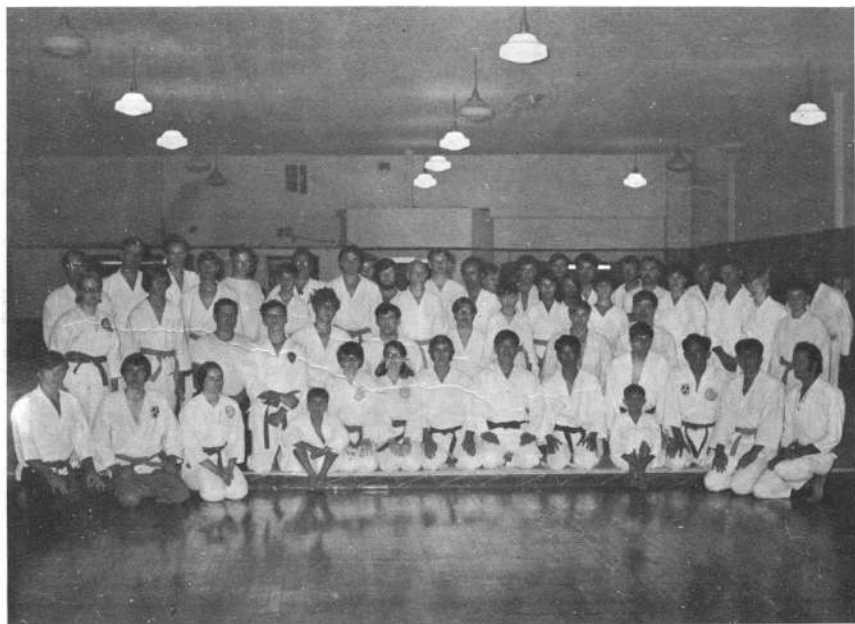


세계속의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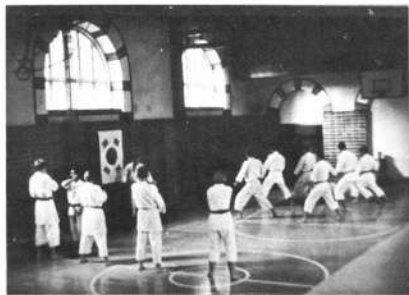
한국

독일



미국의 문상호사범과 수련생

세계속의 태권도



덴마크의 백우현사범과 수련생



한국



독일의 전재화사범과 도장